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전망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생산 부문]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 생산 부문 -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 생산 부문 -

총괄 | 진익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 이상은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이규민 경제분석관
황종률 경제분석관

작성 |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
조은영 경제분석관
최세중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지원 | 정진아 행정실무원
조예은 자료지원분석요원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GDP성장률 및 주요 부문별 경제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와 의제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02) 6788-3781 | nabo3781@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 생산 부문 -

2022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2. 9. 2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 우리 경제는 연초의 예상과는 달리 성장의 하방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긴축기조 강화로 대외수요도 축소되는 가운데, 미·중 마찰에서 촉발된 보호무역 흐름도 강화되는 등 수출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외 경제 여건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전망하여 국회의 예산안·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4권으로 구성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전망에서는 기존의 지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전망에 더하여 성장잠재력, 산업구조 변화, 소득분배, 인구구조 변화와 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전망 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제Ⅰ권 「지출 부문」은 GDP,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항목과 소비자물가를, 제Ⅱ권 「성장 및 금융 부문」은 잠재성장률, 총요소생산성, 금리, 온실가스배출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Ⅲ권 「생산 부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을, 제Ⅳ권 「소득 및 인구·고용 부문」은 국민총소득과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등의 소득 변수와 인구·고용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제조업은 강한 수출회복력을 보이면서 경기 불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였고, 서비스업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산 측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의 여파로 제조업은 2.3%, 서비스업은 2.2% 증가하면서, 올해 보다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보고서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NABO 2023년 생산 부문별 전망]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국내총생산(GDP)	2.9	2.2	-0.7	4.1	2.5	2.1
총부가가치	3.1	2.4	-0.9	4.2	2.9	2.1
제조업	3.3	1.1	-1.1	6.9	2.7	2.3
서비스업	3.8	3.4	-0.8	3.8	3.3	2.2
건설업	-2.8	-2.6	-1.3	-2.6	-1.7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7	4.3	4.1	4.0	1.7	2.1
기타 ¹⁾	-0.3	3.3	-5.6	3.7	-0.9	0.6
순생산물세	1.3	0.8	1.4	3.1	-1.5	2.1

주: 1) 농림어업 및 광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요 약

I.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1.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란 생산, 소비, 고용 등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로봇, 웨어러블, 빅데이터, 클라우드 관련 기술들이 제조업에 적용되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화 촉진
- 제조업 성장률 둔화와 서비스업 성장률 정체가 동반되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진입
 -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높은 주거비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소비위축, 투자의 정체와 고용의 감소 등이 원인
 - 대외적 요인으로는 신흥국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제조업의 공급 포화와 미·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등이 원인
- (부가가치) 2010년대부터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이 제조업 연평균 부가가치 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
 - 제조업: (1980년대) 12.3% → (2000년대) 5.5% → (2010년대) 2.8%
 - 서비스업: (1980년대) 9.7% → (2000년대) 4.6% → (2010년대) 3.3%
- (취업자 수) 1990년대부터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이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을 상회
 - 제조업: (1980년대) 5.7% → (1990년대) -2.2% → (2010~2021년) 0.5%
 - 서비스업: (1980년대) 5.1% → (1990년대) 4.4% → (2010~2021년) 1.1%
- (성장기여도)¹⁾ 1980~2021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제조업의 기여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1) 성장기여도(기여율 × 통계치의 전체 증감률)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 제조업: (1980년대) 2.7%p → (2000년대) 1.7%p → (2010~2021년) 1.0%p
- 서비스업: (1980년대) 4.1%p → (2000년대) 2.6%p → (2010~2021년) 1.7%p
-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2016년 이후 제조업(부가가치 기준)이 서비스업을 상회
 - 제조업: (2016년) 2.9 → (2021년) 6.0
 - 서비스업: (2016년) 1.5 → (2021년) 3.5

2.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으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서 빠르게 회복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강한 수출회복 능력이 작동되어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 관련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성장

-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홈코노미(Homeconomy)²⁾가 부상하고,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ICT 산업에서 수출이 증가
 - 2019~2021년 중 ICT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연평균 9.0%, ICT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5.0% 증가하며, 국내총생산 성장률 1.7%를 상회
 -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3년 39.4%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를 전후로 2019년 36.4%에서 2021년 38.8%로 증가세로 전환
-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는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부상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 숙박 및 음식, 운수, 문화·기타서비스 등 소비자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
 - 반면, 의료·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은 ‘코로나 특수’ 효과로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

2) 집(Home)+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홈코노미 서비스는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대여업, 홈 엔터테인먼트(게임, 콘텐츠), 홈 케어(출장청소) 업종 등이 있다.

3. 잠재적 불확실성 점검

□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대내외 잠재적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은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무역수지 적자, 원화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2022년 7월 중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2019년 8~10월 대비 각각 1.7배, 1.6배 상승
 -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협상 합의(2022.7.21.), 올해 작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향후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대
 - 선박, 철강,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원유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중국의 수입 수요를 감소시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2/4분기 중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중국 내 실업률 증가, 광공업 생산 감소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1.7%p) 조정
 -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재개로 국내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산업에서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물류 지연에 따른 상품 판매가 감소
 - 비록 6월 봉쇄조치가 해제되었지만, 중국경제 성장둔화에 따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 압력과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이 우려되나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단기간에 수출 관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원유 및 원자재의 높은 수입 비중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
 -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

-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와 첨단기술에 대한 안보 위협,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 등은 미·중 기술패권 분쟁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중 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주요 조치

-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안정적인 공급망 재편 등의 추진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출범(2022.5.23.)
- 2,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제정(2022.8.9.)
- 7,4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보급확대, 청정에너지 경제구축, 재정적자 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2022.8.16.)

II. 생산 부문별 전망

□ 2023년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부가가치는 증가

- 제조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석유화학,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중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2.7% 증가, 2023년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각국의 통화 긴축 추진 등으로 수출이 정체되며 전년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4.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중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3.3% 증가, 2023년에는 팬데믹 기간 중 나타났던 일부 업종의 코로나 특수가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둔화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원자재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4%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중 감소세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1.7% 감소, 2023년에도 정부의 공급확장기조 효과로 감소세가 축소되며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전력수요의 증가세를 전인하였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둔화되어 2.2%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중 서비스업 증가세 축소가 확대되며 전년대비 1.7% 증가, 2023년에도 냉난방 수요 증가와 LNG 수요 상승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

[각 산업별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제조업	3.0	2.4	2.7	2.3
서비스업	4.2	2.4	3.3	2.2
건설업	-1.4	-2.0	-1.7	-0.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2	1.2	1.7	2.1

1. 제조업

□ 2023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 세계 경제 침체, 국제 교역량 축소, 공급망 불안 지속,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 등 세계경기 불확실성의 확대로 2022년(2.7% 전망)보다 0.4%p 낮은 2.3% 증가할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일부 완화, 코로나19의 엔데믹 진입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이 낮아질 전망
- 2022~2023년 기간 중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2.5% 증가하여 2017~2021년 평균 증가율 2.8%를 하회할 전망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비대면 방식의 정착으로 관련 업종의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되고,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전망됨
- 다만, 글로벌 통화 긴축, 공급망 불안,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성은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 서비스업

□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보다 증가세 둔화

- 2023년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2년(3.3% 전망)보다 1.1%p 낮은 2.2%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으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관련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서비스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다만, 일부 업종에서 코로나19 특수가 축소되고, 글로벌 경기 불안과 금리 인상 등은 내수 경기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2~2023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2.8% 증가하여 2017~2021년 증가율 2.6%를 상회할 전망
 -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인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통화 긴축,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 될 전망

3. 건설업

□ 2023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감소세 완화

- 2023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22년(-1.7% 전망)에 비하여 감소세가 완화되며 전년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금리 인상 압박 등 건설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인하여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건설선행지표들 및 관련 심리지표들 또한 반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상승 시기에 건설업의 매출액은 확대되지만, 영업이익률은 거의 늘지 않기 때문에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가가치는 정체
- 2022~2023년간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0.9% 감소하여 2017~2021년의 평균 0.7%의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건설경기 지표상 건설경기는 확장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례적인 경제 하방 압력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건설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건설경기 확장기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설경기 회복세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상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증가할 전망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할 전망
 - 전년도 기저효과와 냉난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의 증가, 저탄소 정책에 따른 LNG 수요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공급망 회복 지연과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둔화, 내수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률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예상에 따른 LNG 가격의 상승 지속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2022~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평균 1.9% 증가하여 2017~2021년 증가율 3.4%를 하회할 전망
 - 전망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과 가스 가격, 기온과의 실증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
 - 가스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유가의 추이를 따르고 냉방도일은 2022년 저점(서울 기준, 31.2일)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차 례

[제 I 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제1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 3

제1절 산업부문별 비중 변화	5
1. 부가가치	6
2. 취업자 수 추이	10
3. 성장기여도	13

제2장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 16

제1절 제조업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	16
제2절 ICT 산업의 성장	19
제3절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위상 변화	20

제3장 잠재적 불확실성 점검 / 23

제1절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	24
제2절 중국경기의 둔화	26
제3절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달러화 강세	27
제4절 통상여건의 변화	29

[제Ⅱ부 생산 부문별 전망]

제1장 제조업 / 35

제1절 현황	35
1. 반도체	40
2. 자동차	42
3. 화학	45
4. 철강	48
제2절 2023년 전망	51

제2장 서비스업 / 58

제1절 현황	58
1.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63
2. 금융 및 보험업	65
3. 운수업	66
4. 사업서비스업	67
제2절 2023년 전망	69

제3장 건설업 / 78

제1절 현황	78
제2절 2023년 전망	83

제4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88

제1절 현황	88
제2절 2023년 전망	92

표 차례

[제I부]

[표 I-1] 실질 국내총생산, 총부가가치, 순생산물세의 연평균 증가율	5
[표 I-2]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8
[표 I-3]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11
[표 I-4]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실질) 성장기여율 및 성장기여도 추이	14
[표 I-5]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21
[표 I-6] 택시 등록대 수 및 운전자 수	22
[표 I-7] IRA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족 요건	31

[제II부]

[표 II-1] 국가별 제조업의 취업자 수 비중	37
[표 II-2] 제조업 업종별 현황(2021년 기준)	38
[표 II-3] 제조업 세부 업종별 연구개발비 비중	39
[표 II-4] 자동차 동력원별 신규 등록대 수	44
[표 II-5] 세계의 조강 생산 능력	49
[표 II-6]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52
[표 II-7] 주요국 서비스업의 GDP(명목) 비중 비교	59
[표 II-8] 서비스업 업종별 현황(2021년 기준)	61
[표 II-9] 서비스업의 소상공인 비중과 생산 증감률 비교(2021년 기준)	63
[표 II-1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70
[표 II-11] 부문별 산업연관분석	80
[표 II-12]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84
[표 II-13] 건물건설의 공사기간	85
[표 II-14] 건설경기 순환 주기	85
[표 II-15]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전망	86
[표 II-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93

그림 차례

[제 I 부]

[그림 I-1]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추이	6
[그림 I-2]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10년 평균) 추이 ..	7
[그림 I-3] 제조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9
[그림 I-4]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9
[그림 I-5] 온라인 쇼핑 추이	10
[그림 I-6]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	12
[그림 I-7]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비중(10년 평균) 추이	13
[그림 I-8]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15
[그림 I-9]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변화	17
[그림 I-10] 제조업, 서비스업,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18
[그림 I-11] 코로나19 전후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18
[그림 I-12] ICT 제조업 부가가치 및 GDP 비중	20
[그림 I-13] ICT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GDP 비중	20
[그림 I-14] 잠재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23
[그림 I-15] 에너지 가격 추이	24
[그림 I-16] 원자재 및 곡물 가격지수 추이	24
[그림 I-17]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	26
[그림 I-18] 중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증가율	26
[그림 I-19] 한미 기준금리 추이	28
[그림 I-20] 달러인덱스 추이	28
[그림 I-21] 내외국인 증권투자추이	29
[그림 I-22] 무역수지	29

[제II 부]

[그림 II-1]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비교	36
[그림 II-2]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실질) 및 취업자 수 비중 추이	37
[그림 II-3]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40
[그림 II-4] 반도체 산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추이	41
[그림 II-5] 반도체 산업 수출 및 증감률 추이	41
[그림 II-6]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추이	42
[그림 II-7]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 비중	43
[그림 II-8] 화학 산업의 구분	46
[그림 II-9]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46
[그림 II-10]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46
[그림 II-11] 석유화학 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	47
[그림 II-12] 석유화학 산업의 대중국 수출 추이	47
[그림 II-13] 제조업 중 철강 산업 비중	48
[그림 II-1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52
[그림 II-15] 자동차 수출 추이	53
[그림 II-16] 친환경 자동차 수출 추이	53
[그림 II-17] 철강 수출 추이	54
[그림 II-18] 철강 생산지수 추이	54
[그림 II-19] 반도체 수출 추이	55
[그림 II-20] 반도체 생산지수 추이	55
[그림 II-21] 제조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57
[그림 II-22]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57
[그림 II-23]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59
[그림 II-24] 서비스 수지 추이	60
[그림 II-25]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교	62
[그림 II-26]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64
[그림 II-27]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65
[그림 II-28] 운수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67

[그림 II-29] 사업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68
[그림 II-3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70
[그림 II-31] 온라인쇼핑 매출 증감률 추이	71
[그림 II-32] 온라인쇼핑 식품 비중 추이	71
[그림 II-33]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추이	72
[그림 II-34] 국내 숙박여행 횟수 추이	73
[그림 II-35] 국내 방문자 수 및 관광지출액 증감률 추이	73
[그림 II-36] 국내 여객수송 증감률 추이	74
[그림 II-37] 국내 화물운송 증감률 추이	74
[그림 II-38] 사업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75
[그림 II-39]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 증감률 추이	75
[그림 II-40] 가계대출 증감률 추이	76
[그림 II-41] 주식거래대금 증감률 추이	76
[그림 II-42] 서비스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77
[그림 II-43]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77
[그림 II-44] 국내총생산 중 건설업 비중	79
[그림 II-45] 건설경기 지표 추이	80
[그림 II-46]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82
[그림 II-47]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82
[그림 II-48]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84
[그림 II-49] 한국의 건설경기 순환	85
[그림 II-50] 건설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87
[그림 II-51]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87
[그림 II-5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추이	89
[그림 II-5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90
[그림 II-54] 용도별 전력판매량	90
[그림 II-55] 전력 연료비 단가	91
[그림 II-56]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91
[그림 II-57] 수도사업의 매출액 추이	91
[그림 II-58] 부문별 수도사업의 매출액 추이	91

[그림 II-5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93
[그림 II-60] 에너지원별 소비자가격 추이	94
[그림 II-61] 최종에너지 소비의 추이	94
[그림 II-62] 냉방도일과 난방도일 추이	95
[그림 II-63] 냉난방도일 증감과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증가율 추이	95
[그림 II-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97
[그림 II-6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97

국회에산정책처



제 I 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 I 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제1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증대하는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
- 제조업 성장률 둔화와 서비스업 성장률의 정체로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진입

산업구조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 상태 및 생산력의 구조를 의미하며, 국민경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산업별 부가가치액(또는 산출액)이나 각 산업의 취업자 수 등의 비중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산업구조는 기술, 노동력, 자본축적, 국제경쟁력 등 공급측 요인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 변화로 나타나는 수요측 요인 그리고 이들 양 요인을 보완하는 산업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한다.¹⁾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산업간 불균형(구조변동)이 조정되어 가는 현상으로 산업간 불균형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수요변화(소비선호 변화에 의한 산업간 불균형 등)와 공급변화(공급구조변화 등), 기술변화 등이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자국 및 경쟁국의 산업정책과 규제 등이 있다.²⁾

1980~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변화는 첫째, 1990년대³⁾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산업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최세중 경제분석관(sjchoi@assembly.go.kr, 6788-4679)

1) 산업연구원,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21.6.24.

2)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II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2020.8.7.

3)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보다 낮은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구조(또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구조(또는 경제)의 서비스란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제조업 고부가가치화로 인한 탈산업화, 국제분업구조 확산, ICT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견인된다. 특히 제조업체들이 생산과정에서 중간재로서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거나 최종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제조업의 서비스화로 정의하고, 서비스 기능의 외주활동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서비스 비중을 늘리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활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국제분업구조의 진전,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 등은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경계를 허물면서 산업 간 융합과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둘째, 최근 들어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양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동반하여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성장 기조는 대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높은 주거비용(주택가격과 전월세 등),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 장기간 과다투자로 인한 투자의 정체와 고용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제조업의 공급 포화와 미·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관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국민계정상 실질 국내총생산(생산 GDP),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통계청의 취업자 수 추이 등을 통해 살펴본다.

실질 국내총생산(생산 GDP) 추계 방법⁵⁾

국민계정상 산업별로 추계된 부가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시장가격으로 평가되는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산업별 부가가치가 기초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총생산은 기초가격으로 평가된 산업별 부가가치의 합, 즉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에 순생산물세(= 생산물세⁶⁾ - 생산물보조금⁷⁾)를 더해 산출한다.

4) 이시욱·최용석,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30.

제1절 산업부문별 비중 변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생산 GDP)의 성장률은 1980년대 연평균⁸⁾ 10.0%에서 1990년대 6.9%, 2000년대 4.4%, 2010년대 2.9%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2010년대를 최근까지로 연장(2010~2021년)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더 낮아져,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우수한 노동력과 저임금, 저금리 정책자금을 통한 높은 투자율, 대외 지향적인 산업화 전략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 총노동 투입시간과 자본 증가율의 하락 등을 원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총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9.9%, 1990년대 7.0%, 2000년대 4.6%, 2010~2021년 기간 중 2.7%를 기록하며, 성장률 하락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순생산물세도 1980~2021년 기간 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1-1] 실질 국내총생산, 총부가가치, 순생산물세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0~2021
국내총생산	10.0	6.9	4.4	2.9	2.7
총부가가치	9.9	7.0	4.6	3.0	2.7
순생산물세	11.1	6.3	3.1	2.7	2.6

주: 증가율은 각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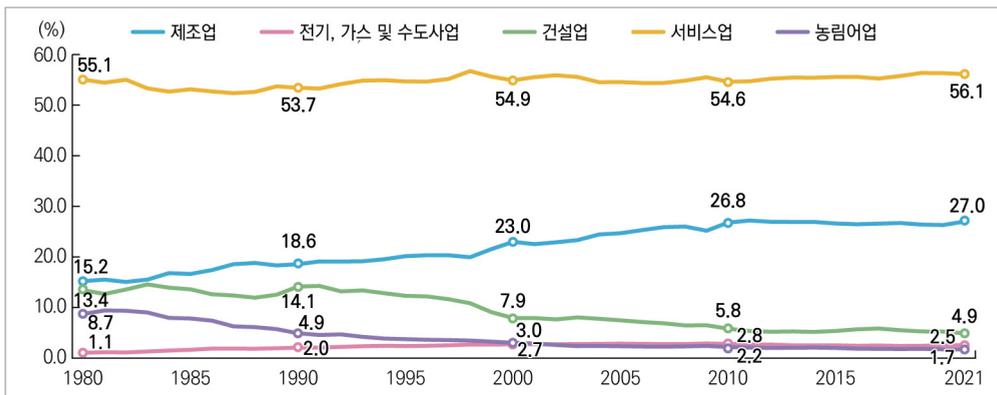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 6)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할 때 재화 또는 서비스의 단위(부피, 무게, 중량 등)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되거나 단위당 가격 또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 7) 생산물보조금은 재화 또는 서비스 한 단위당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동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 판매 또는 수입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 8)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 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환산한다.

1. 부가가치

1980~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실질) 대비 산업부문별 비중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건설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1980년 15.2%에서 1990년 18.6%, 2000년 23.0%, 2010년 26.8%, 2021년 27.0%로 1980~2021년 기간 중 11.8%p 상승하였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비중 상승 폭이 작게 나타나는데, 1980년 55.1%에서 1990년 53.7%, 2000년 54.9%, 2010년 54.6%, 2021년 56.1%로 1980~2021년 기간 중 1.0%p 상승하였다. 건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1980년 13.4%에서 1990년 14.1%으로 증가했다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 7.9%, 2010년 5.8%, 2021년 4.9%를 기록하며 1980~2021년 기간 중 8.5%p 하락하였다. 1980년 건설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제조업과 불과 1.8%p 차이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22.1%p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농림어업은 1980년 8.7%에서 1990년 4.9%, 2000년 3.0%, 2010년 2.2%, 2021년 1.7%로 1980~2021년 기간 중 7.0%p 하락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1980년 1.1%에서 1990년 2.0%, 2000년 2.7%, 2010년 2.8%, 2021년 2.5%로 1.4%p 상승하였다.

[그림 1-1]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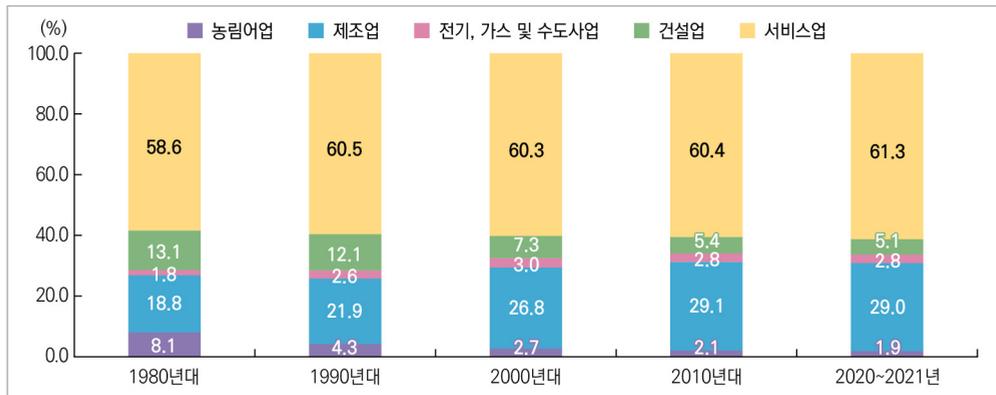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9) 국민계정상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수도사업, 환경복원업을 포함한다.

산업부문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10년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상승하였고, 건설업과 농림어업은 하락하였다. 제조업은 1980년대 평균 18.8%, 1990년대 21.9%, 2000년대 26.8%, 2010년대 29.1%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0~2021년에는 평균 29.0%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평균 58.6%, 1990년대 60.5%, 2000년대 60.3%, 2010년대 60.4%로 횡보를 반복하다, 2020~2021년에는 평균 61.3%를 기록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1980년대 1.8%에서 1990년대 2.6%, 2000년대 3.0%로 증가하였다가,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소폭 하락한 2.8%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건설업은 1980년대 평균 13.1%에서 1990년대 12.1%, 2000년대 7.3%, 2010년대 5.4%로 꾸준히 감소했고, 2020~2021년에는 평균 5.1%를 기록했다. 농림어업도 1980년대 8.1%에서 1990년대 4.3%, 2000년대 2.7%, 2010년대 2.1%로 꾸준히 감소했고, 2020~2021년에는 1.9%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림 1-2]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10년 평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년대에는 서비스업(3.3%)의 연평균 성장률이 제조업(2.8%)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표 1-2]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실질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1980년대	5.0	12.3	17.5	8.0	9.7
1990년대	2.2	8.7	10.0	1.9	7.4
2000년대	1.9	5.5	5.1	2.2	4.6
2010년대	0.9	2.8	1.3	1.8	3.3

주: 증가율은 각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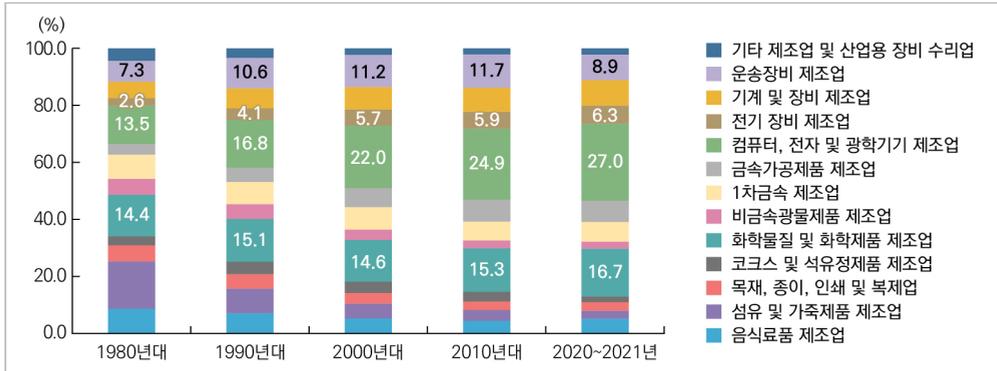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80~2021년 기간 중 제조업 세부 13개의 업종 중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금속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비중이 증가했다.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1980년대 13.5%의 비중에서 2010년대 24.9%, 2020~2021년간 27.0%로 13.5%p 증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주력산업으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이 있으며, 이들 3개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80년대 35.2%에서 2020~2021년간은 52.6%로 증가하며 제조업의 절반을 상회했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은 15% 내외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다 2020~2021년 16.7%로 증가했다. 운송장비 비중은 2010년대 11.7%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 2020~2021년간은 둔화세를 나타냈다.

반면,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 등은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섬유 및 가죽제품은 1980년대 1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2021년간은 2.9%의 비중에 그쳤다. 음식료품의 비중도 1980년대 8.8%의 비중이었으나, 2020~2021년간은 5.1%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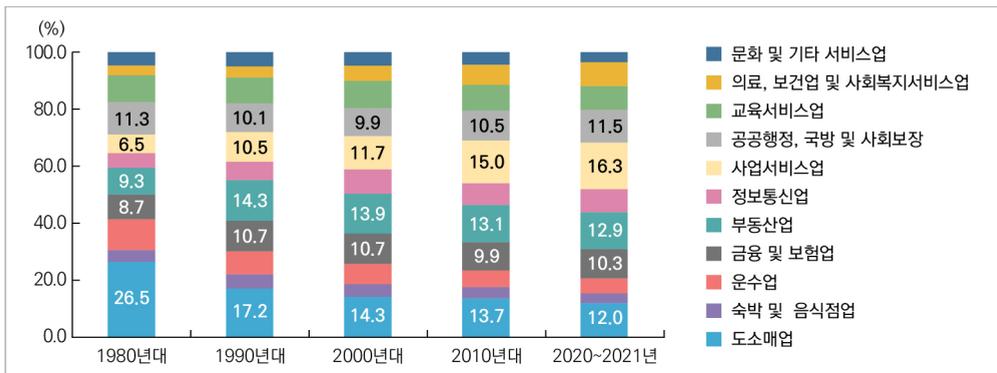
[그림 1-3] 제조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에서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도·소매업의 비중이 1980년대 26.5%에서 2020~2021년간 12.0%로 14.5%p 감소하며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¹⁰⁾의 비중은 1980년대 6.5%에서 2020~2021년간 16.3%로 증가했다. 이외에 2020~2021년 기준 금융 및 보험(10.3%), 부동산업(12.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11.5%) 등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1-4] 서비스업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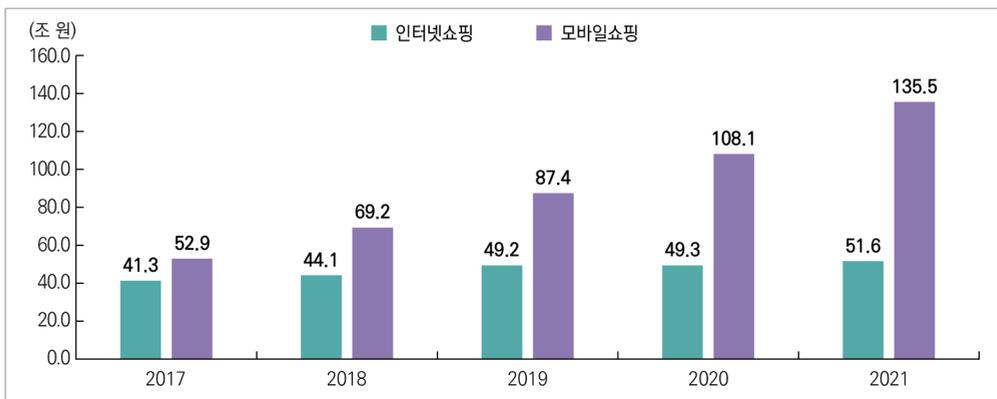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0)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즉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 연구개발, 사업관련전문서비스 등)과 사업지원서비스(청소소독 및 시설유지, 인력 공급 및 알선, 기타 사업지원서비스)로 구분된다.

서비스업이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규모가 2017년 94.1조 원에서 2021년 187.1조 원으로 98.6% 증가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의 거래가 인터넷 쇼핑보다 크게 성장했다. 동기간 인터넷 쇼핑은 24.9% 증가한 51.6조 원, 모바일 쇼핑은 156.1% 증가한 135.5조 원을 기록했다.

[그림 1-5] 온라인 쇼핑 추이



자료: 통계청

2. 취업자 수 추이

1980~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는 1980년 1,361.3만 명에서 1990년 1,808.5만 명, 2000년 2,117.3만 명, 2010년 2,403.3만 명, 2021년 2,727.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2.8%, 1990년대 1.3%, 2000년대 1.3%, 2010년대 1.4%를 기록하였다. 동기간 중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제조업은 1990년대부터 전체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서비스업보다 낮은 취업자 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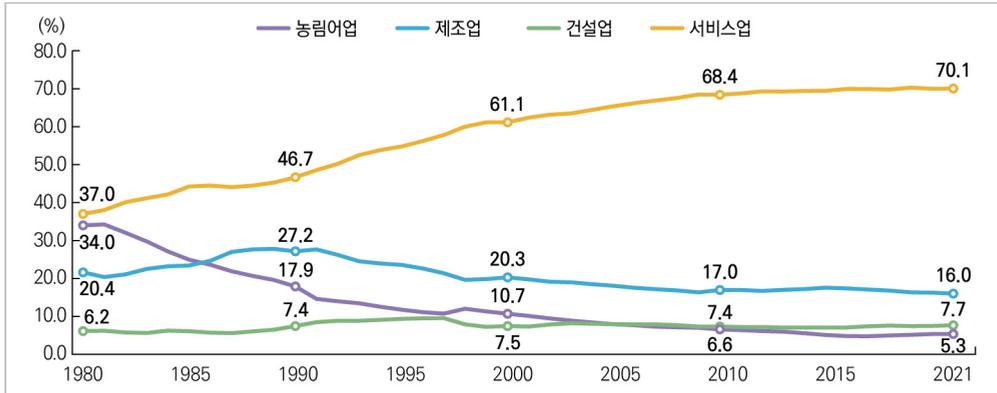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0~2021년
전체 취업자 수	2.8	1.3	1.3	1.4	1.0
농림어업	-3.3	-3.7	-3.4	-1.4	-0.6
제조업	5.7	-2.2	-1.1	0.9	0.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3	-1.3	11.5	3.8	4.4
건설업	3.4	1.0	1.0	1.5	1.5
서비스업	5.1	4.4	2.5	1.7	1.1

주: 증가율은 각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CAGR)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산업부문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농림어업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1980년 37.0%에서 1990년 46.7%, 2000년 61.1%, 2010년 68.4%, 2021년 70.1%로 1980~2021년 기간 중 33.1%p 상승하였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였는데, 1980년 20.4%에서 1989년 27.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0년 27.2%, 2000년 20.3%, 2010년 17.0%, 2021년 16.0%로 꾸준히 하락하여 1980~2021년 기간 중 4.4%p 하락하였다. 농림어업은 1980년 34.0%에서 1990년 17.9%로 급락한 후, 꾸준히 하락해 2021년 5.3%를 기록하며 1980~2021년 기간 중 28.7%p 하락하였다. 건설업의 비중은 1980년 6.2%에서 1990년 7.4%으로 상승한 후, 최근까지 7.5%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1980~2021년 기간 중 1.5%p 상승하였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1980년 0.3%에서 2021년 0.9%로 0.6%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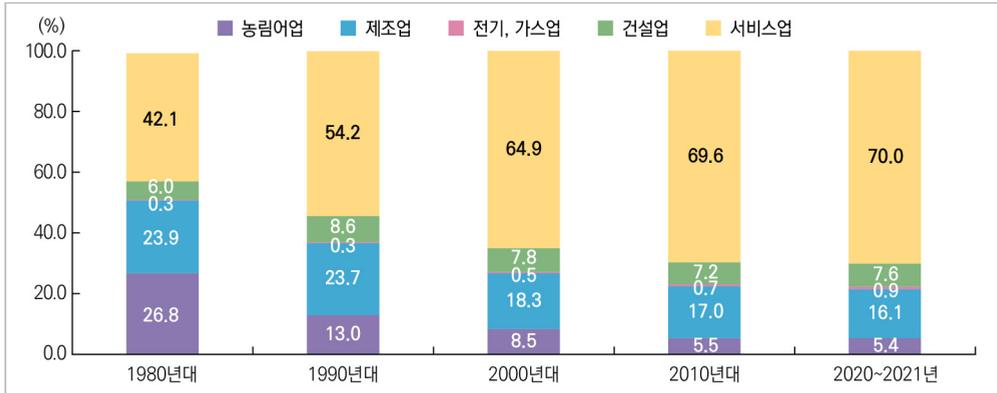
[그림 1-6]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1963~1992년, 1992~2000년, 2000~2008년, 2004~2017년, 2013~2021년)를 연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비중(10년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하락하였다. 서비스업은 1980년대 평균 42.1%, 1990년대 54.2%, 2000년대 64.9%, 2010년대 69.6%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평균 70.0%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1980년대 평균 6.0%에서 1990년대 8.6%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7.8%, 2010년대 7.2%로 하락하였고, 2020~2021년에는 평균 7.6%를 기록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1980년대 0.3%에서 2000년대 0.5%, 2010년대 0.7%로 증가하였다가, 2020~2021년에는 평균 0.9%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은 1980년대 평균 23.9%, 1990년대 23.7%, 2000년대 18.3%, 2010년대 17.0%로 꾸준히 하락했고, 2020~2021년에는 평균 16.1%를 기록했다. 농림어업은 1980년대 26.8%에서 1990년대 13.0%, 2000년대 8.5%, 2010년대 5.5%로 꾸준히 감소했고, 2020~2021년에는 5.4%를 기록하며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림 1-7] 우리나라의 산업부문별 취업자 수 비중(10년 평균) 추이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1963~1992년, 1992~2000년, 2000~2008년, 2004~2017년, 2013~2021년)를 연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성장기여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여율과 기여도가 있다. 기여율이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을 증감시키는 데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각 항목 변화의 크기를 전체의 증감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준시점의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증가분을 전체의 증가분에 대한 백분비로 표시한 것이다.¹¹⁾ 기여도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 상승하고 이 가운데 쌀 가격의 상승만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0.25% 상승하였다면 쌀가격의 기여도는 0.25%p가 된다.¹²⁾¹³⁾

1980~2021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모두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기여율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80년대 평균 18.8%, 1990년대 24.1%, 2000년대 21.9%, 2020~2021년에는 평균 29.4%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1998년, 2009년, 2020년 세 차례 위기 상황에서 제조업은 각각 28.0%, -76.6%, 39.9%의 기여율을 나타냈다.

11) 기여율 = (개별구성항목의 증감액 / 전체 증감액) × 100

12) 기여도 = 그 항목의 기여율 × 통계치의 전체 증감률

13) 통계청 누리집, 「통계용어 및 설명」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1980년대 평균 29.4%, 1990년대 53.3%, 2000년대 62.5%, 2020~2021년에는 평균 60.5%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1998년, 2009년, 2020년 세 차례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각각 26.1%, 139.1%, 63.8%의 기여율을 나타냈다. 2020~2021년에는 평균 61.3%를 기록했다. 2000년대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제조업의 기여율이 음수(-76.6%)를 기록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기여율(139.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때문이다.

1980~2021년 기간 중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제조업의 기여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모두 하락하였다. 제조업의 기여도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80년대 평균 2.7%p, 1990년대 2.3%p, 2000년대 1.7%p, 2020~2021년에는 평균 1.0%p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980년대 평균 4.1%p, 1990년대 3.7%p, 2000년대 2.6%p, 2020~2021년에는 평균 1.7%p를 나타냈다. 1990년대 이후 1998년, 2009년, 2020년 세 차례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업은 각각 -1.2%p, 1.1%p, -0.5%p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표 1-4] 산업부문별 국내총생산(실질) 성장기여율 및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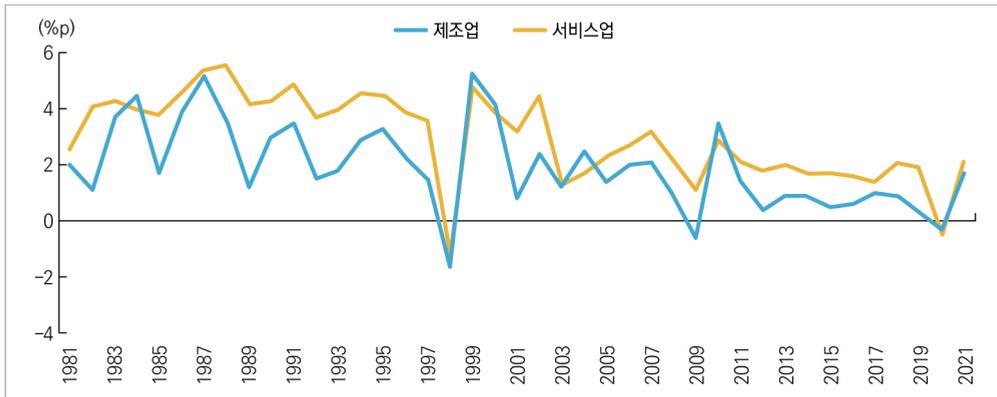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1~2021년	
			1998	2009	2020	2020		
국내총생산 증가율		8.9	7.3	-5.1	4.9	0.8	3.1	-0.7
제조업	기여율	18.8	24.1	28.0	21.9	-76.6	29.4	39.9
	기여도	2.7	2.3	-1.7	1.7	-0.6	1.0	-0.3
서비스업	기여율	29.4	53.3	26.1	62.5	139.1	60.5	63.8
	기여도	4.1	3.7	-1.2	2.6	1.1	1.7	-0.5

주: 1. 성장기여율은 기준시점의 (실질)GDP의 증가분을 국내총생산의 증가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기여도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것

2. 성장기여율은 성장기여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8] 산업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제2장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 제조업의 수출회복력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서 빠르게 반등
- 비대면 수요 연관 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성장
 - 홈코노미(Homeconomy)의 부상으로 ICT 산업이 큰 폭 성장
 - 특히 서비스업에서 코로나 특수 등으로 인해 업종간 위상 변화 발생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다. 첫째,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하면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 기여도가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대면 수요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위상 변화가 명확히 나타났다.¹⁴⁾ 셋째, 비대면 수요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ICT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IC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지의 여부는 제한된 정보와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한다.

제1절 제조업의 경제위기 대응 능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선진국(-4.5%)¹⁵⁾과 신흥국(-2.1%)¹⁶⁾ 대부분이 역성장하면서, 세계 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3.1%의 성장률을 나타냈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14) 주원, “코로나 경제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22-01, 현대경제연구원, 2022.1.17.

15) 미국 -3.4%, 유로존 -6.3%, 일본 -4.7%, 영국 -9.8%

16) 인도 -7.3%, 러시아 -7.3%, 브라질 -4.1%, 멕시코 -8.3%

다.17)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강한 수출회복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하락 폭인 -0.7%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 둔화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8)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5위 수준의 경쟁력19)을 기반으로 강한 수출회복 능력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한 후 2013년 39.4%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전후로 수출 비중이 2019년 36.4%에서 2020년 36.6%, 2021년 38.8%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림 1-9] 우리나라 수출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2012년 3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2020~2021년 2년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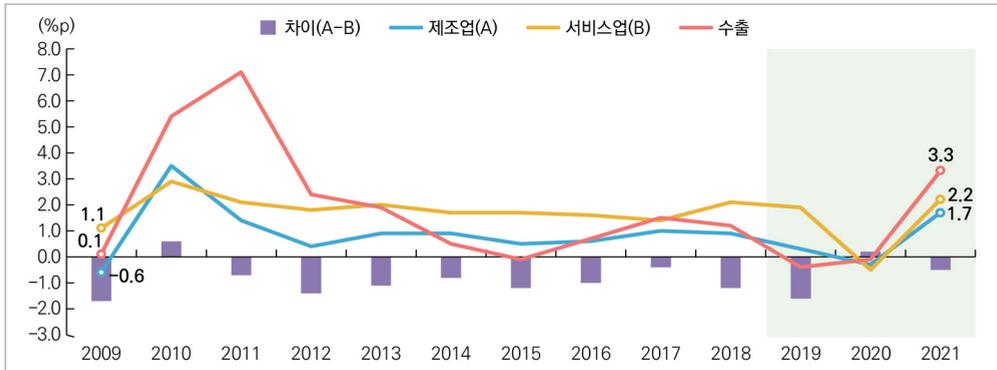
17)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18) 황경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08호, 산업연구원, 2021.5.6.

19)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

또한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보다 낮은 편이다. 2009~2021년 기간 중 제조업, 서비스업과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위기 상황이었던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단 두 차례만 예외적으로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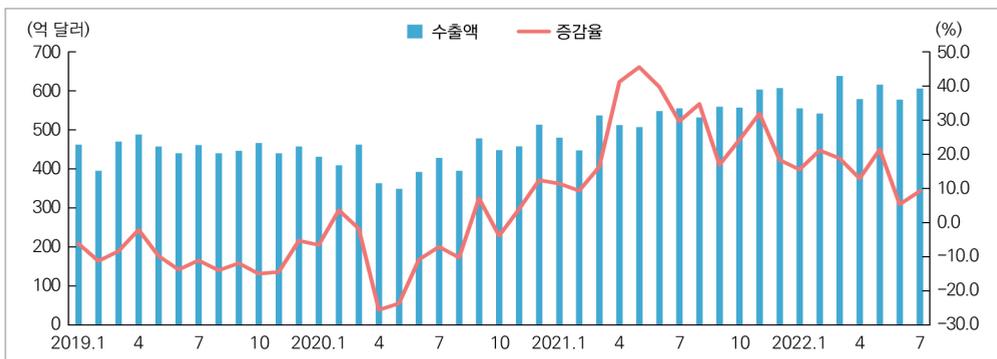
[그림 1-10] 제조업, 서비스업, 수출의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코로나19 전후 기간의 월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2020년 4월과 5월에 전년동월대비 각각 -25.6%, -23.7%를 기록한 후 이른바 'V'자형 회복 양상을 나타내며,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4월 41.2%, 5월 45.5%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대 성장율을 기록하였고, 5월의 45.5% 증가는 1988년 8월(52.6%) 이후 3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그림 1-11] 코로나19 전후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제2절 ICT 산업의 성장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홈코노미(Homeeconomy)²⁰⁾가 부상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의 증가와 비대면 수요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향후 ICT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전망으로, ICT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적이었던 대면 오프라인 활동의 위축은 수요를 감소시켜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비대면 온라인 수요의 확산으로 이와 연관된 컴퓨터, 영상음향기기 등의 시장이 성장하는 긍정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²¹⁾ 홈코노미의 확산으로 인터넷과 데이터 사용이 급증²²⁾하면서 글로벌 IT기업에서 서버 증설 등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이와 연관된 반도체와 SSD 등 저장장치의 수요도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의 수출도 급증하였다.²³⁾

ICT 산업은 기관마다 분류체계가 다소 상이하나, 크게 ICT 제조업(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정보통신업)으로 구분한다.²⁴⁾

ICT제품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이며(2020년 기준), 2011~2020년 중 ICT제품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전체 수출 증가율(0.9%)을 상회한다. 그러나 산업연관표상 ICT 상품²⁵⁾의 생산유발계수²⁶⁾(2019년 기준, 1.551)는 전산업(1.791), 공산품(1.903) 및 서비스(1.684)보다 낮아 ICT상품이 국내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²⁷⁾

20) 집(Home)+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홈코노미 서비스는 음식 및 생활용품 배달업, 대여업, 홈엔터테인먼트(게임, 콘텐츠), 홈 케어(출장청소) 업종 등이 있다.

21) 산업연구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산업의 신성장전략」, 2021.12.

22) 우리은행경영연구소(2021.10.29.)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의 성장으로 데이터 트래픽은 2017년 5만GB/s에서 2021년 12.5만GB/s로 증가하였고, 최근 2년간은 2.5배 급증하였다.

23)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16개월 연속 수출액 1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4) 통계청은 OECD 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산업 분류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로 ICT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처리 및 통신, 전송, 표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물을 산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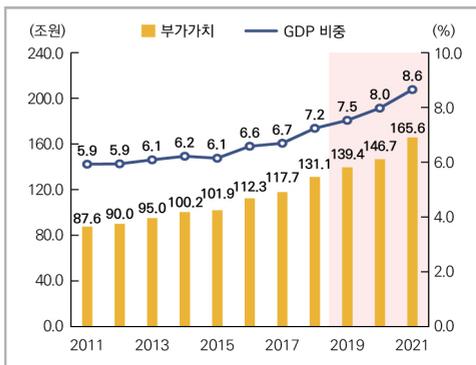
25) ICT공산품은 중분류상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방송·영상·음향기기를, ICT서비스는 대부분류상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를, ICT상품은 ICT공산품과 ICT서비스를 포함한다.

26) 국산품(재화 및 서비스) 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낸다.

ICT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11년 87.6조 원에서 2021년 165.6조 원으로 78.0조 원(연평균 6.6%) 증가하였다. 또한 ICT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2011년 61.6조 원에서 2021년 91.3조 원으로 29.7조 원(연평균 4.0%) 증가하며, 동기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2.6%를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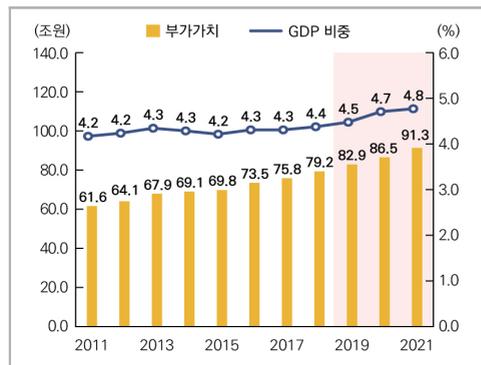
코로나19 전후 시기인 2019~2021년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ICT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9.0%, ICT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5.0%로 동기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 1.7%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림 1-12] ICT 제조업 부가가치 및 GDP 비중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3] ICT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GDP 비중



자료: 한국은행

제3절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 위상 변화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 문화·기타서비스 등 소비자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²⁷⁾ 반면, 의료·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은 부가가치 비중이 상승했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가가치 비중 하락이 도·소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9~2021년

27) 한국은행 경기본부,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1.

28)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2021.3.3.

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은 0.8% 하락하였다.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중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2019년에는 비중이 더 높았으나, 2019~2021년 기간에는 0.5%p 감소하며 0.2%p 하락한 기타 서비스업보다 2021년에는 부가가치 비중이 오히려 낮아졌다. 운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 통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통행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코로나 진단 수요의 급증, 전국민 예방접종의 시행으로 '코로나 특수'가 의료·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나타나며 부가가치 비중이 높아졌다. 감염에 대한 염려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선호되면서 소비, 문화, 여가 등을 집에서 해결하는 홈코노미(Homeconomy) 서비스가 빠르게 부상하며 2020년 이후 게임, 전자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²⁹⁾ 여기에 학생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원격 수업을 받게 되고, 기업에서 재택근무 문화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에서 인프라 투자 등도 확대하면서 부가가치 비중도 상승하였다.

[표 1-5] 서비스업 세부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 %p)

업종	2019	2020	2021	증감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7.1	16.3	16.2	-0.9
도매 및 소매업	13.1	13.1	13.1	0.0
숙박 및 음식점업	4.0	3.3	3.2	-0.8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4.1	3.1	3.1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1	1.5	1.6	-0.5
기타 서비스업	2.0	1.9	1.8	-0.2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2	8.4	8.5	0.3
운수업	6.1	5.1	5.1	-1.0
금융 및 보험업	9.8	10.8	11.1	1.3
정보통신업	7.9	8.4	8.5	0.6
통신업	2.1	2.3	2.3	0.2
출판, 방송, 영상, 정보서비스업	5.8	6.1	6.2	0.4

주: 증감은 2019년 대비 2021년 차이임

자료: 한국은행

29)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2021.3.3.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6만 명(-4.4%)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5.9만 명(-6.9%)이 감소하였다. 2020년 두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 전체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 23.5만 명(1.2%)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운송업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현재까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2020년 7월~2022년 7월 기간 중 전국의 택시 대수는 2020년 7월 240,823대에서 2022년 7월 230,458대로 10,365대(-4.3%) 감소하였고, 전국의 택시 운전자 수는 2020년 7월 341,418명에서 2022년 7월 323,259명으로 18,159명(-5.3%) 감소하였다. 특히 일반택시에서 택시 등록대 수와 운전자 수가 대부분 감소하여,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전자보다 피고용인인 일반택시 운전자에서 고용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6] 택시 등록대 수 및 운전자 수

(단위: 대, 명)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체	
	등록대 수	운전자 수	등록대 수	운전자 수	등록대 수	운전자 수
2019	80,094	87,453	164,903	252,356	244,997	339,809
2020	76,239	89,650	164,584	251,768	240,823	341,418
2021	70,021	78,639	164,465	250,722	234,486	329,361
2022	66,092	73,751	164,366	249,508	230,458	323,259
증감 (증감률)	10,147 (-13.3)	15,899 (-17.7)	218 (-0.1)	2,260 (-0.9)	10,365 (-4.3)	18,159 (-5.3)

주: 1. 각 연도 7월 말 기준 자료임

2. 증감(증감률)은 2020년 7월 대비 2022년 7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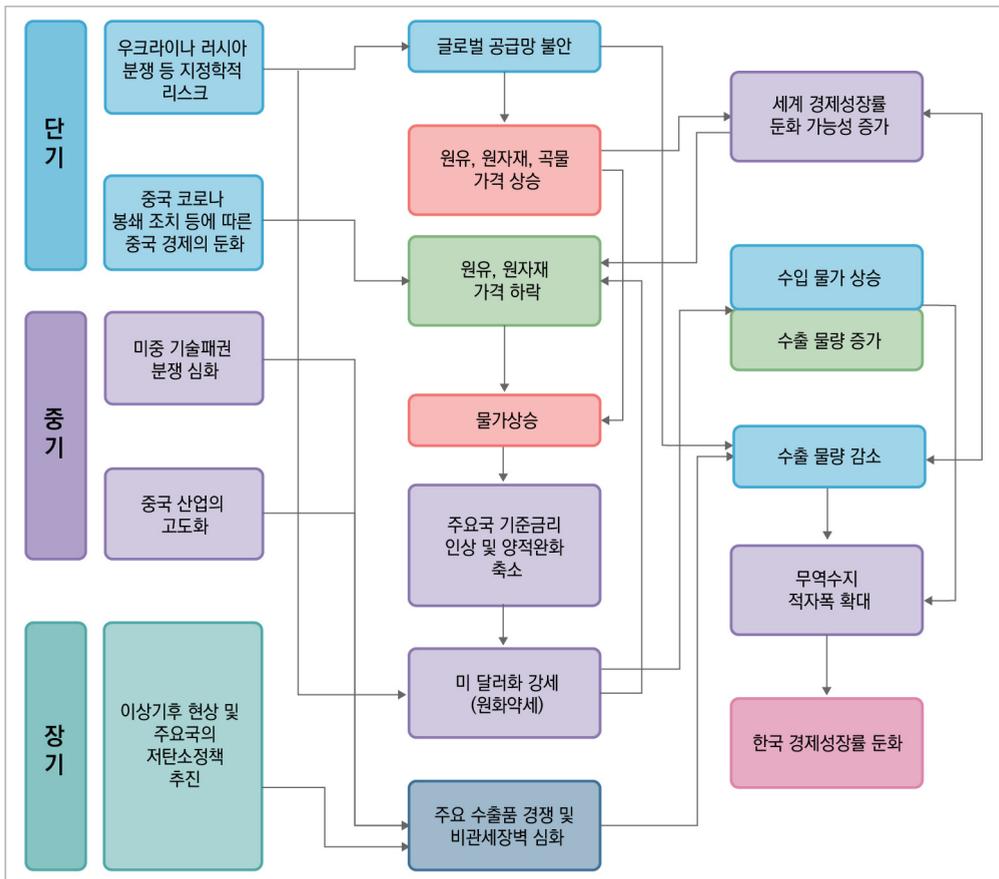
자료: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제3장 잠재적 불확실성 점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 중국 경기의 둔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통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

[그림 1-14] 잠재적 리스크의 파급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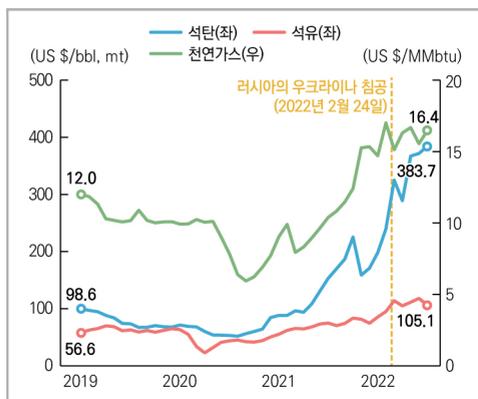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제1절 글로벌 공급망 불안 지속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³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2020년 상반기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한동안 크게 하락하였다. 2020년 8~10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각각 배럴당 50.1달러, 메트릭톤당 39.9달러, 백만비티유당 5.9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6%, 30.3%, 42.0%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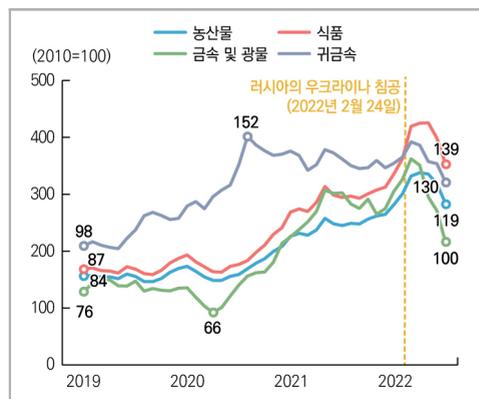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OPEC+의 감산 합의 유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 신규 투자 지연,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가스 수요의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³¹⁾ 2022년 7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은 2019년 8~10월 대비 각각 5.8배, 1.7배, 1.6배 상승하였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공급 비중은 각각 12.1%, 16.6%, 5.2%를 차지한다.

[그림 1-15] 에너지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석유수출국기구

[그림 1-16] 원자재 및 곡물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30) 도원빈·강내영,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제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31) 한국은행,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최근 상황 점검,”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21.11.19.

한편 곡물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수요 급증,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인력 부족 등으로 2022년 3~5월 농산물, 식품, 금속 및 광물, 귀금속 가격은 2019년 저점 대비 각각 1.7배, 1.9배, 2.2배, 1.6배 상승하였다.³²⁾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양국의 원자재 생산과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중단, 미국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러시아의 수출규제를 통한 맞대응으로 1~3개월 사이에 농산물은 8.4%, 식료품은 12.5%, 금속 및 광물은 7.7%, 귀금속은 5.3%씩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옥수수, 니켈, 철광석의 공급 비중은 각각 26.1%, 13.7%, 11.3%, 7.2%에 이른다.

다만 이런 추세는 2022~2023년 곡물 작황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7월 21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협상 합의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고, 올해 작황이 호황일 것이라는 전망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곡물 가격이 4~6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다.³³⁾

이처럼 국제 원유,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상승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원유와 원자재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³⁴⁾ 한편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은 일부 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³⁵⁾ 예를 들면, 선박 산업의 경우 강재 등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원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우 철광석과 원료탄의 가격이 2/4분기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고유가가 지속되면 북미 및 중동의 셰일과 천연가스 기반의 제품에 비해 국내 기업의 나프타 기반 에틸렌 계열 제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³⁶⁾

32)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2021.12.30, 28쪽.

33) 김지연 외,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과 전망,” 「KREI 현안분석」 제8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7.

34) 도원빈·강내영(2022)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수입금액이 3.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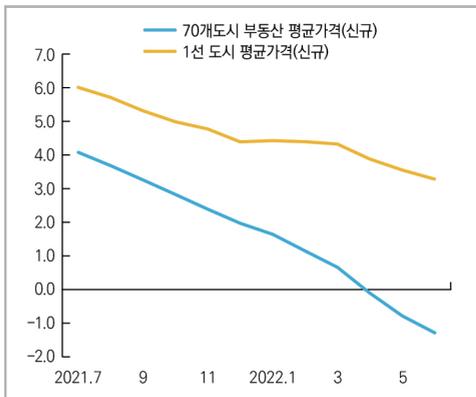
35) 도원빈·강내영(2022)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이 2021년 평균 8.8% 상승하였고 이 중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6) 홍지상 외,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Focus」 제1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

제2절 중국경기의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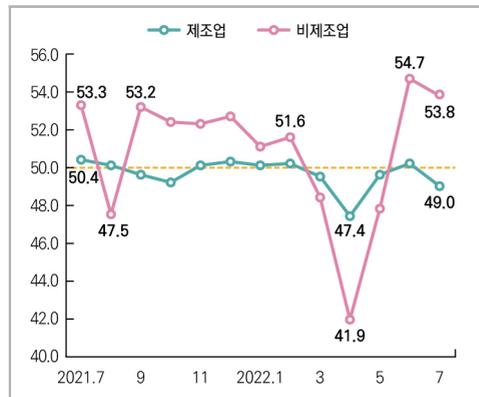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의 재개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다.³⁷⁾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2022년 3월 28일부터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력난, 부동산 시장 규제, 폭염·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식료품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전망치 1.2%를 하회하였다. 중국경제에서 투자와 정부 세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규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⁸⁾ 2022년 3~5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구매관리자지수(PMI)³⁹⁾가 50 이하로 감소하였고 산업생산이 1~2월에 전년동기대비 7.5%에서 4월 -2.9%, 수출이 16.3%에서 3.7%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1-17] 중국의 부동산 가격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1-18] 중국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증가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 37) 이치훈·김기봉, “중국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2.8.29.
 38)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굴삭기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53.1% 감소하였고 부동산 경기지수가 95.3으로 2016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내었다.
 39)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란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0~100 사이의 값으로 산출된 값. 경기변동에 대한 속보성 정보를 제공하며 50 이상이면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경기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교통, 물류, 5G 등 인프라 투자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수요 촉진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GDP의 1.7% 이상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작년부터 강도 높게 추진되었던 부동산 시장 억제 및 IT기업 규제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부동산 보유세를 보류하거나 전력난에 대응하여 국내 석탄 채굴을 늘리고 있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는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4\sim-0.8\%$ p 조정한 4% 초반으로 전망하나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부양, 완화적 통화정책이 2023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중국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하락할 수 있다.⁴⁰⁾ 실제로 2/4분기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조치는 국내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 등 원자재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기존에 비해 1.7~2배 상승하거나 일부 부품 수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현지 진출 기업의 완성차 판매 부진과 더불어 코로나19 재봉쇄 조치로 수출입 물류와 완성차 생산이 지연되었고, 중국 내 컴퓨터 제조사들의 생산 차질로 SSD 등 부품 주문도 감소하였다.⁴¹⁾

제3절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달러화 강세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한미간의 금리차와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달러화 강세(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⁴²⁾

40) 강내명·양지원,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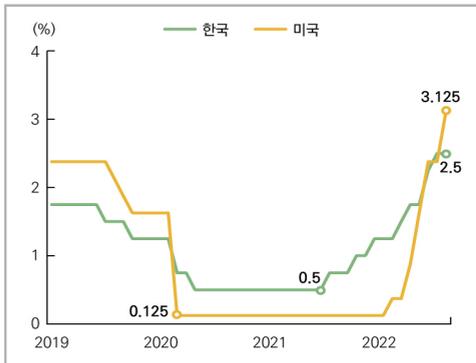
41) 홍지상 외,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Focus」 제1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

42) 도원빈·강내영,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제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약 4조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⁴³⁾⁴⁴⁾하면서 2021년 3월까지 1%대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9월에는 9.1%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미 연준은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022년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0~0.25%에서 3~3.25%까지 인상하였다. 특히 6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75%씩 인상하였고,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내 4%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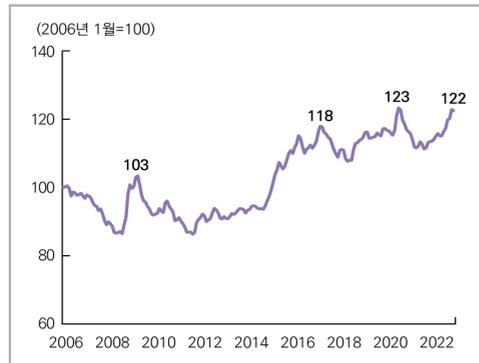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주요국의 긴축적 재정정책 시행,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가 달러화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19] 한미 기준금리 추이



주: 미국 기준금리는 평균치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0]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F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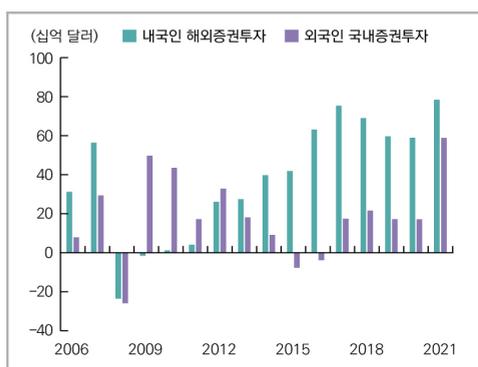
또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 주식순매수는 증가하고 있고, 원유 및 원자재의 높은 수입 비중으로 인해 202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8월 기준 1,318원으로 2009년 2월(1,462원) 이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43) 펜더믹에 대응하면서 연준의 총자산 잔액은 2020년 2월 약 4.2조 달러에서 2021년 8월 8.3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44) Amadeo, Kimberly, "How It Allows Central Banks to Create Massive Amounts of Money," The Balance, 2021.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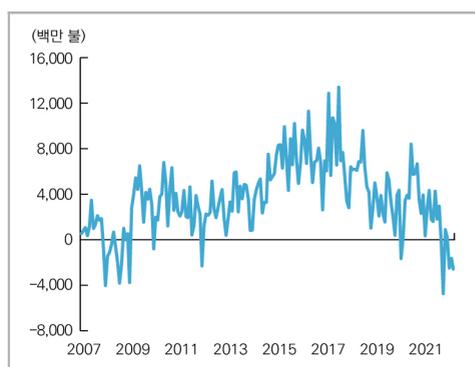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의 해외 자본유출이 확대되고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 민간소비와 비IT제조업 및 비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키고 이자보상배율을 하락시켜 한계기업의 비중을 높이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⁴⁵⁾⁴⁶⁾ 이에 반해 원화약세는 단기간에 국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수출 관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1] 내외국인 증권투자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2] 무역수지



자료: 한국은행

제4절 통상여건의 변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와 첨단기술에 대한 안보 위협에서 촉발된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45) 박경훈 외,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7호, 한국은행, 2022.7.

46) 김현석, “기준금리 인상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31호, 산업연구원, 2022.4.

Economic Framework)를 2022년 5월 23일 출범하였다. IPEF는 디지털경제, 탈탄소화, 공급망 재구축 등 새로운 통상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클럽형 협의체이다.⁴⁷⁾ 상품 및 서비스교역 및 투자 등의 (비)관세 장벽철폐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다자간 무역협정과 달리 IPEF는 디지털 무역 및 무역 원활화, 안정적인 공급망 재구축, 인프라구축, 탈탄소 및 청정에너지, 조세 및 반부패의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모든 조항에 동의를 요구하는 전통적인 다자간 무역협정과 달리 개별 후보국들이 선별적으로 일부 필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한국, 일본, 대만 4개국으로 형성된 반도체 동맹을 맺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2022년 8월 9일에 발효하였다.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의 비중이 1990년대 37%에서 최근 12%로 감소한 것에 대한 우려로 반도체 산업지원(527억 달러), 과학연구지원(1,700억 달러) 등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와 과학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설비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등에 R&D 보조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설비건설과 장비 등에 대해 25%의 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등 지원금 수혜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국 등 비우호국에 대한 해외투자 불가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7,40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2022년 8월 16일에 통과시켰다.⁴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감축을 목적으로 3,7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대해 최대 4,000달러, 신차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2023년부터 10년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40% 이상이 미국 내 생산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47) 최정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40호, 산업연구원, 2022.6.17.

48) 허난이·박수령·문희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범무법인 광장, 2022.9.5.

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미·중 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⁴⁹⁾⁵⁰⁾

[표 1-7] IRA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충족 요건

배터리의 미국산 비용 충족 요건		
신차 보조금	핵심광물 비율 요건 (최대 3,73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용비율 이상 미국에서 추출 및 처리된 경우 ② 미국의 FTA 체결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③ 북미에서 재활용된 수혜대상이어야 함 - 적용비율은 장관 지침 발행일부터 2023년 말까지 40%에서 매년 10%씩 증가시켜 2027년부터는 80%를 적용
	북미산 배터리부품 비율 요건 (최대 3,73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부품 중 미국 내 제조 또는 조립된 부품이 적용비율 이상인 경우 수혜 대상이 됨 - 적용비율은 장관 지침 발행일부터 2023년 말까지 50%에서 매년 10%씩 증가시켜 2029년부터는 100%를 적용
중고차 보조금	최대 4,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친환경차 해당 차량가격의 30% 한도내에서 보조금 지급 - 3년에 한번 신청 제한 - 신차 구입 이후 최소 2년 이상된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 가격은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해당
북미지역 내 최종 조립 요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이 이루어지는 전기자동차에 세금 공제가 제공되며, 본 요건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적용		

자료: 허난이·박수령·문희은(2021)

49) 대중국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산업의 부가가치 감소 규모는 대만이 명목GDP 대비 5.5%, 한국이 3.5%로 추정되고,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전산업 부가가치의 감소 규모는 대만이 명목GDP 대비 9.5%, 한국이 6.6%로 추정되었다.

50) 박용정·민지원이진하,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 22-07호, 현대경제연구원, 2022.

국회에산정책처



제2부

생산 부문별 전망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조부 생산 부문별 전망

제1장 제조업



제1절 현황

- 최근 5년간 제조업의 실질 GDP 비중은 26.6%~27.0% 수준에서 정체
 - 제조업 부문에서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꾸준히 하락
 - 주요국 대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하락
 -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 등만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음
- 제조업 중에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큼

제조업은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의 수출 비중이 크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들을 주력산업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로 제조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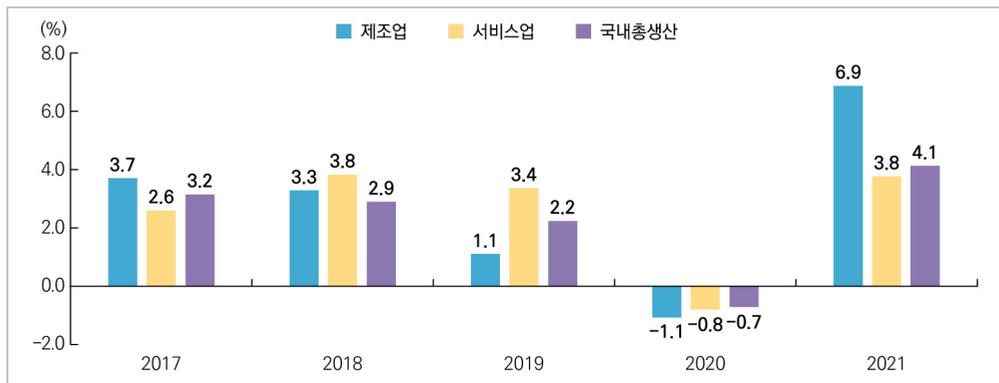
우리나라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1년 국내총생산 대비 27.2%를 기록한 후 정체되어 최근까지 26.0~27.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제조업이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6%에서 2021년 27.0%를 기록하였다.

2017~2018년 기간 중 제조업의 성장률은 국내총생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직무대리(kwonil@assembly.go.kr, 6788-4677)

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화학, 석유제품 등의 업황 부진으로 국내총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성장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국에서 이동제한(lock-down), 생산중단(shut-down) 등의 조치가 행해짐에 따라 통관수출(달리기준)이 감소하여, 국내총생산(-0.7%)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1.1%)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2021년에는 반도체, 컴퓨터, 가전 등 비대면 산업 등에서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어, 2021년 제조업의 성장률(6.9%)은 국내총생산 성장률(4.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1]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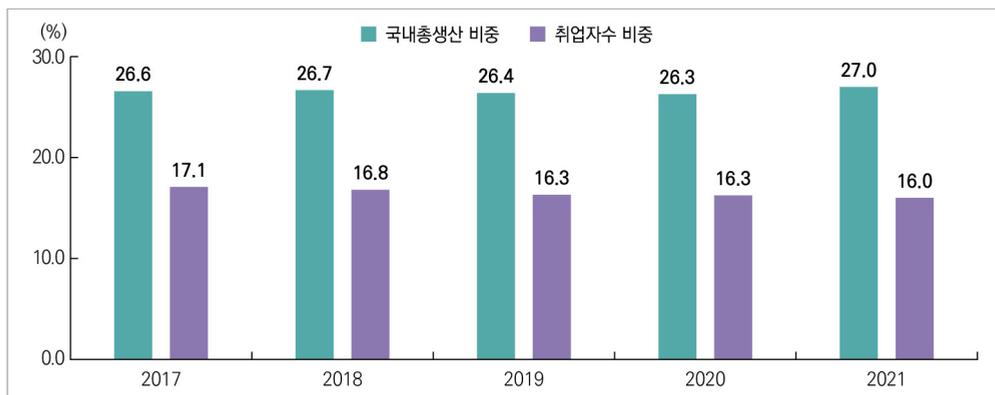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은 2017년 17.1%에서 2021년 16.0%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창출 능력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¹⁾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6.2명/10억 원)²⁾는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2.5명/10억 원)에 비해 작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임금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³⁾

1) 국제 로봇 연맹(IF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보고서(2019.1.2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로봇밀도(직원 수 대비 산업용 로봇의 수)는 2019년 기준 전세계에서 2위 수준이다. 로봇밀도 상위 10개국은 싱가포르(918대), 한국(868대), 일본(364대), 독일(346대), 스웨덴(277대), 덴마크(243대), 홍콩(242대), 대만(234대), 미국(228대), 벨기에·룩셈부르크(214대) 순이다.

2)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그림 II-2]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실질) 및 취업자 수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높은 나라에는 2019년 기준 독일,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이 포함된다. 주요국 대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취업자 수 비중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 하락 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국가별 제조업의 취업자 수 비중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17.4	17.1	16.8	16.3	16.3
독일	19.2	19.0	19.1	18.9	-
프랑스	12.1	12.2	11.7	11.8	11.5
영국	9.5	9.1	8.9	9.1	8.7
이탈리아	18.2	18.2	18.4	18.5	18.7
일본	16.6	16.5	16.3	16.2	16.0

자료: 산업연구원

3) 단, 서비스업 중 금융 보험업종은 제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

2021년 기준 제조업 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은 반도체를 포함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이 9.4%로 가장 크고, 석유산업과 관련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4.5%,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자동차와 조선을 포함하는 운송장비 제조업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이 각각 2.2%로 가장 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0%, 음식료품 제조업이 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제조업 업종별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구 분	총부가가치 비중	전체 취업자 비중
음식료품 제조업	1.3	1.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7	1.2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0.8	0.7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7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4.5	2.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8	0.4
1차금속 제조업	1.5	0.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8	1.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9.4	2.2
전기장비 제조업	1.8	1.0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1.7
운송장비 제조업	2.7	2.2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0.6	0.9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2020년 기준 63조 8,16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0년 전년대비 0.14%p 증가한 4.63%로 우리나라 전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86.7%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6~2020년 기간 중 제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89.0%에서 86.7%로 2.3%p 하락하였다. 2020년 기준 제조업 세부 업종별 비중은 우리나라가 대세계 수출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가 포함되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비중이 58.1%로 가장 크고, 자동차를 포함하는 운

송장비 제조업 14.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9% 순으로 나타난다.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대만 91.9%, 중국 88.4%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고, 일본은 87.0%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비중을 소폭 하회한다.

[표 II-3] 제조업 세부 업종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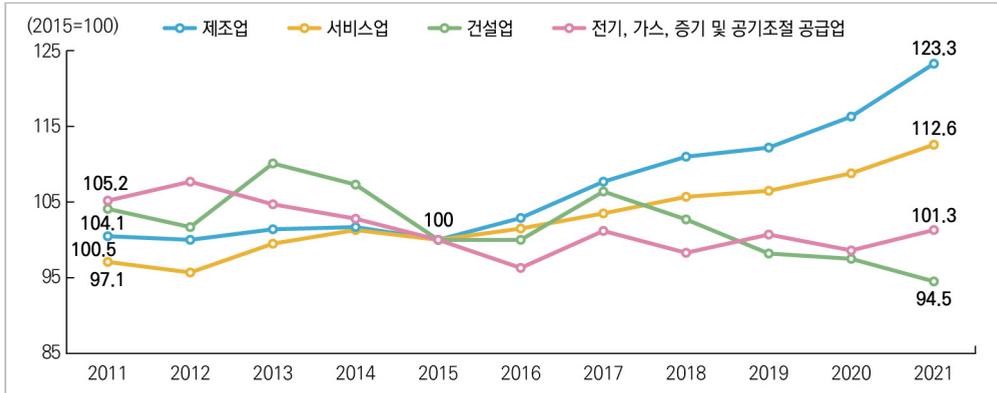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산업	539,525	625,634	688,344	715,067	735,998
제조업	480,141	559,867	611,572	625,550	638,163
	89.0	89.5	88.8	87.5	86.7
음식료품 제조업	1.3	1.2	1.3	1.5	1.5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9	0.9	0.8	0.8	0.8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0.3	0.3	0.3	0.3	0.3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5	0.8	1.0	0.4	0.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0	10.7	10.0	10.5	10.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4	0.5	0.4	0.5	0.4
1차금속 제조업	1.3	1.3	1.2	1.2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3	1.7	1.2	1.3	1.5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57.6	58.0	58.9	58.9	58.1
전기장비 제조업	3.7	3.3	3.4	3.4	3.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	5.6	6.0	6.0	6.1
운송장비 제조업	15.3	15.3	15.1	14.8	14.5
기타 제조업 및 산업용 장비 수리업	0.5	0.4	0.4	0.4	0.4

주: 제조업의 비중은 전산업 대비 비중이고, 세부 업종의 비중은 제조업 대비 비중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2021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23.3으로 서비스업 112.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1.3, 건설업 9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림 11-3]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주: 부가가치 기준 시간당 노동생산성임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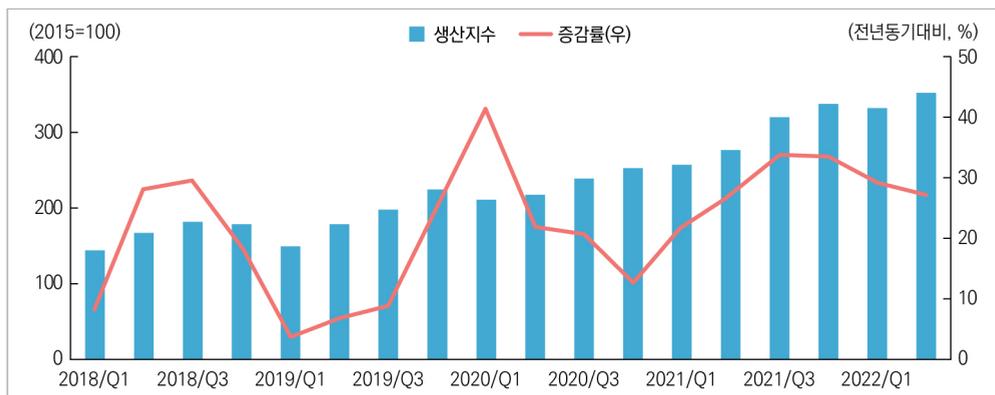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주요 11대 산업 중 통계청의 광공업생산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높은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과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화학, 철강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 반도체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 및 컴퓨터 성능 향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장치에도 전자적인 제어장치 장착이 요구되면서 기존의 기계장치에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올해 전체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시장 규모는 2021년 각각 26.2%, 30.9% 증가에 비해 대폭 축소된 각각 13.9%,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난을 거치고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은 2022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29.2%, 2/4분기에는 27.3% 증가했다.

4) WSTS(The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2022.8.22.

[그림 II-4] 반도체 산업 생산지수 및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연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9.0% 증가한 1,280억 달러로 2018년의 1,267억 달러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했으며, 2022년 7월(누적)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17.8% 증가한 802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II-5] 반도체 산업 수출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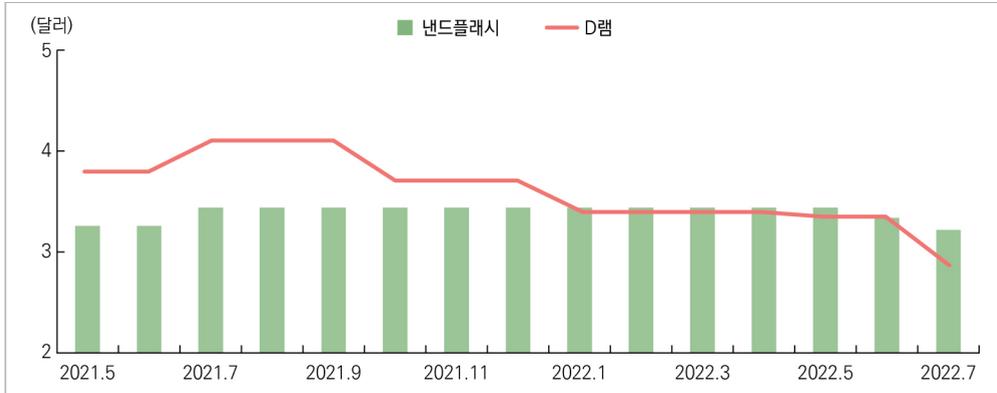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7월 시스템 반도체 수출(46.8억 달러)은 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40.4%)을 기록하였으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113.8억 달러)은 메모리 고정거래가격 하락과 전방 산업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했다.

7월 D램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대비 14.0% 하락한 2.88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2월(-14.5%)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낸드플래시도 가격 하락세가 2개월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6월(4.67달러)에 3.01% 하락한 데 이어 7월(4.49달러)도 전월대비 3.75% 하락했다.

[그림 II-6] D램 및 낸드플래시 가격 추이



주: D램은 DDR4 8GB 기준, 낸드플래시는 128GB MLC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자동차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자동차’라는 완성품의 제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연관성을 지닌 산업이기 때문이다. 철강, 기계, 소재산업과 같은 전통산업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 바이오, 에너지 환경기술 등 첨단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과 기술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더불어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부문에서 출하, 고용, 부가가치, 수출에서 모두 2위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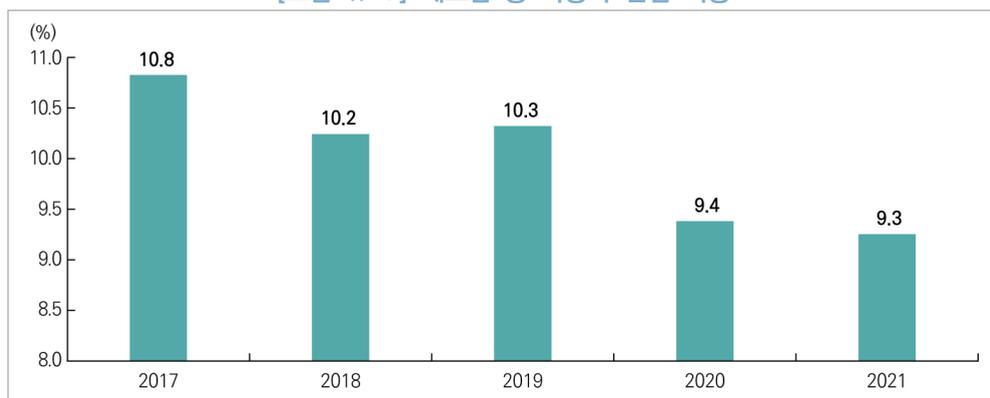
실질 기준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21년 기준 한국 제조업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⁶⁾(38.3%)의 1/4 수준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 비중 최고 수준이었던 1996년에는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15.4%로 10.7%였던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산업분석 Report - 자동차 -」, 2019.5.

6) IT 산업은 국민계정상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합이다.

IT 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한국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단지, 최근의 반도체 수급문제로 표면화되었듯, 현재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전자장비로서의 면모가 강해지고 있다.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 평균적으로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200~300개이다. 이에 반해 전기차에는 평균 1,000개, 자율주행차에는 평균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

[그림 11-7] 제조업 중 자동차 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자동차 내수판매는 부품 공급 부족 여파로 판매 대수로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판매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신차 판매 점유율 25%를 넘어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한 부분이 크다.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HEV, EV, FCEV⁸⁾)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하여 상반기에만 20만 대가 넘게 판매되었다.⁹⁾

7) 전황수 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6권 제3호, 2021.6.

8) HEV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EV는 전기차, FCEV는 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를 의미한다.

9)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2 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2022. 8.

[표 11-4] 자동차 동력원별 신규 등록대 수

(단위: 대, %)

구분	2021				2022		증감률
	연간	비중	상반기	비중	상반기	비중	
휘발유	847,805	48.9	460,646	49.9	396,696	48.5	-13.9
경유	415,925	24	242,122	26.2	166,318	20.3	-31.3
LPG	105,361	6.1	55,931	6.1	37,719	4.6	-32.6
전기동력차	348,850	20.1	157,040	17	210,647	25.8	34.1
하이브리드	239,971	13.8	113,441	12.3	137,043	16.8	20.8
HEV	165,036	9.5	75,079	8.1	98,540	12	31.2
PHEV	19,750	1.1	11,325	1.2	7,202	0.9	-36.4
MHEV	55,185	3.2	27,037	2.9	31,301	3.8	15.8
전기	100,355	5.8	39,273	4.3	68,850	8.4	75.3
수소	8,524	0.5	4,326	0.5	4,754	0.6	9.9
CNG	1,636	0.1	824	0.1	865	0.1	5
기타	15,004	0.9	7,445	0.8	5,772	0.7	-22.5
자동차 계	1,734,581	100	924,008	100	818,017	100	-11.5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출에 있어서도 전기차(친환경차) 수출의 약진으로 2022년 7월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넘어서며(51.4억 달러) 2014년 12월 이후 완성차 수출 최고 실적을 경신하였다. 2022년 7월 전기차 수출액은 2021년 9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1개월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완성차 수출액의 28.6%를 차지하였다. 당분간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국내외에 대한 판매에 크게 기댈 수 밖에 없지만 향후 전자장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는 전기차의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 화학

화학 산업은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처리를 하는 산업활동과 화학적 처리과정에서 생성된 제품을 배합 및 가공하여 화학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산업으로 구분된다.

석유화학은 나프타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합성수지(플라스틱), 합성섬유(Polyester, Nylon) 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섬유, 가전, 자동차, 건설 등 수요 산업의 기초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간 산업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¹⁰⁾로 하는 기술집약형 산업이며 제조원가의 60~80%를 주재료인 나프타의 원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은 세계 경기와 수급 조건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 순환형 산업이다.¹¹⁾

정밀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생산된 기초화학 원료를 합성하여 추출한 후 다단계 배합 및 가공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다. 정밀화학 산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이고 소량 다품종 생산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은 설비를 요구하며 비가격적 경쟁요인에 의해 제품의 경쟁력 및 가격이 결정된다. 정밀화학 산업의 생산품은 의약품, 염료, 안료, 도료, 잉크, 화장품 및 향료 등이 있으며 자동차부품 또는 건설자재, 섬유제품, 타이어, 피혁산업 등 수요산업의 중간원료로 활용된다.¹²⁾¹³⁾¹⁴⁾

10) 우리나라의 경우 NCC설비를 모체로 관련 계열공장들이 수직계열화되어 있어 1개 단지 건설에 약 40억달러가 소요되고 기술 선점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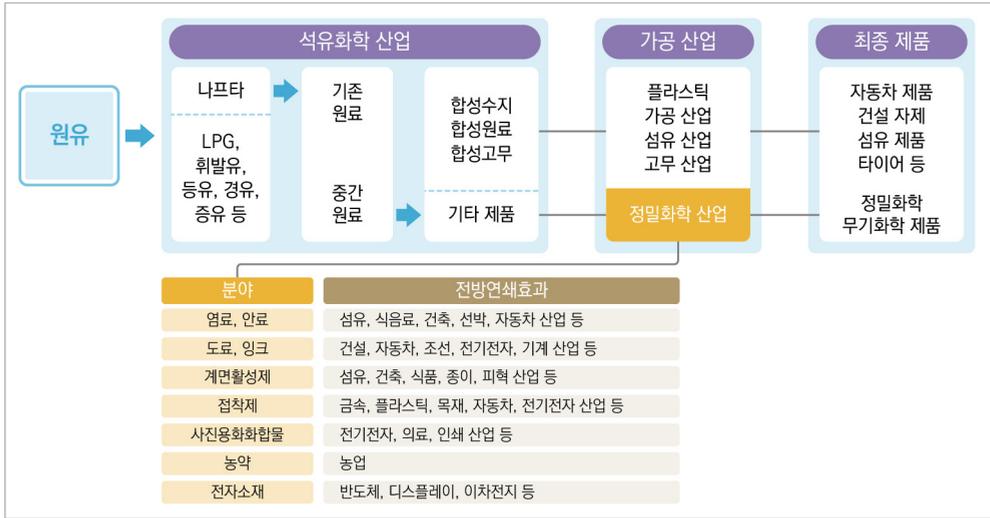
11) 한국석유화학협회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밀화학」, 2015, 5쪽.

13)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는 고순도의 정밀화학물질 및 소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규제에 영향을 받는다.

14) 김성훈, 「주요 국내의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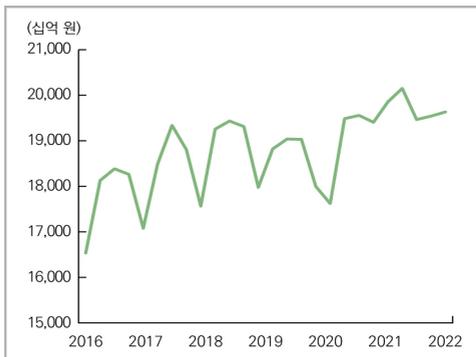
[그림 11-8] 화학 산업의 구분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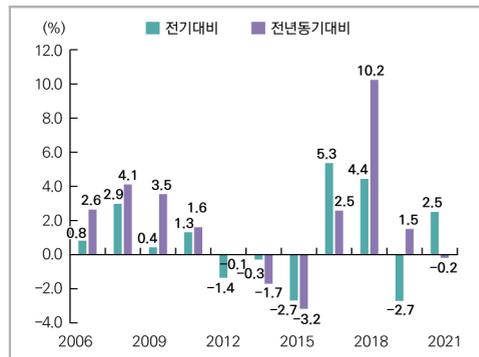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39.2조 원(GDP 대비 4.1%)으로 전기대비 2.5% 증가한 반면,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하였다. 이는 올해 초 이루어진 설비증설에 따른 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 봉쇄조치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였고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합성수지의 운송차질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¹⁵⁾

[그림 11-9]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1-10] 화학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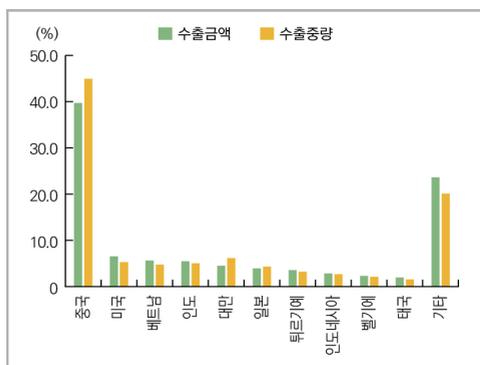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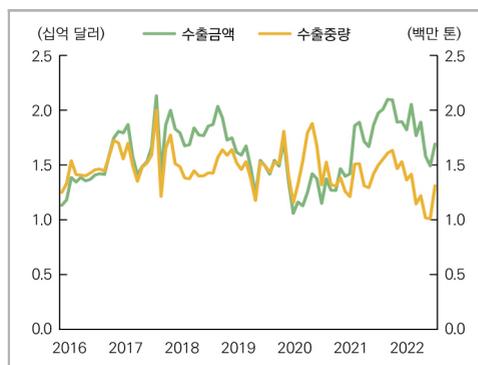
석유화학제품¹⁶⁾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 기준 219억 달러(상반기 119억달러, 하반기 99억 달러)로 전체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약 39.7%를 차지하였다. 2022년 상반기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 수출은 110억 달러로,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량은 8.1백만 톤에서 7.7백만 톤으로 5.0% 감소하였다.

[그림 II-11] 석유화학 산업의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12] 석유화학 산업의 대중국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하반기 이후 화학 산업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유가·원자재가격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세계 에틸렌 수요는 전년대비 1.9억 톤(4.2%)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은 전년대비 2.2억 톤(6.1%)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증설로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국내 주력제품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나프타나 LPG에 기반한 에틸렌 계열 제품은 미국과 중동의 셰일·천연가스 기반의 저가원료에 기반한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나프타나 LPG 등 원재료 수입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으나 제품 수출도 달러로 주로 이루어져 원화절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¹⁷⁾

16) MTI 기준 21인 품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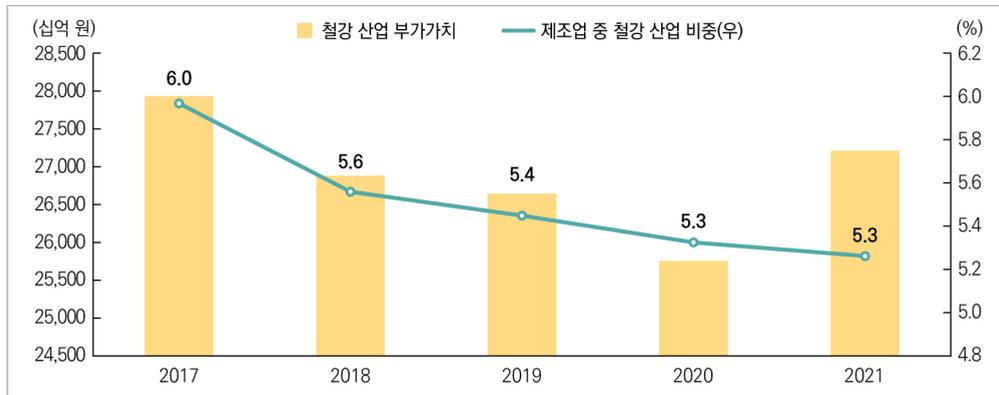
17) 홍지상 외,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Focus』 제1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37~39쪽.

4. 철강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¹⁸⁾으로서 자본집약적이며, 소재산업의 특성상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크다. 철강 산업은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 제거 후 연주 및 압연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 철강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산된 철강제품은 자동차, 조선, 가전, 기계, 건설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기초소재로 쓰이게 된다. 이러한 철강 산업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 5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 철강 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IT 산업¹⁹⁾의 제조업 중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후방 산업에 필수적 중간 투입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시아, 중동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철강설비를 증설 중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²⁰⁾

[그림 II-13] 제조업 중 철강 산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18) 생산수단으로 각종 대규모 장치를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산업

19) IT 산업은 국민계정상의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의 합

20) 이동이, 「국내 철강 산업의 현황과 과제」,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8

철강 산업은 철광석, 철스크랩 등 원자재의 가격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철광석의 경우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급등한 원자재가격은 철강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철강 제품의 국내 가격을 살펴보면, 철근 가격은 코로나 이전 톤 당 66만 원에서 지난 6월 111만 원(분기고시가격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열연가격(포스코 SM355 유통가격) 또한 같은 기간 톤 당 70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급등하였다. 원자재가격 상승이 철강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철강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생산 능력을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철강 산업의 부상 등에 따른 내수 및 수출 경쟁 심화, 환경규제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다양한 위협과 부담요인에 대응할 전략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II-5] 세계의 조강 생산 능력

(단위: mmt)

지역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아프리카	33.6	39.9	40.7	43.3	44.6	44.7
아시아	1435.3	1629.1	1612.9	1585.2	1617.6	1646.3
중국	1056	1188.6	1160.1	1124.2	1149.5	1157.1
일본	132	129.9	128.5	128.5	128.5	128.5
한국	76	82.2	81.6	81.6	81.6	81.6
CIS	139.6	142.3	142.3	141.9	143.4	143.6
유럽	308.7	294.3	292.5	292.5	292.4	291
중남미	72.7	77.4	78.1	78	78	77.5
중동	38.5	68	71.2	74.8	79.5	86.7
북미	155.8	156	156.3	156.9	153.3	156.5
오세아니아	9.1	6.4	6.4	6.4	6.4	6.4

주: mmt는 백만 메트릭 톤을 의미

자료: OECD

더불어 제조업 스마트화 등 철강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역시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 철강 산업은 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 친환경 신기술 개발 및 적용, 최근 트렌드에 발맞춘 고기능, 고부가치 소재 개발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공급망 교란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기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공급망이 안정화되면서 철강 산업도 차츰 안정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2023년 전망²¹⁾

- 2023년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2.7% 전망)보다 낮은 2.3%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2017~2021	2022~2023
6.9	2.7	2.3	2.8	2.5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
○ 공급망 차질 일부 완화	○ 미·중 무역갈등 지속
○ 코로나19 엔데믹 진입	○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2022년 상반기 중 제조업은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²²⁾ 금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 금리인상,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조치 등 대외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일부 완화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반도체 단가 하락, 제조업 재고 증가 등으로 제조업 생산회복 흐름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중 제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전년 하반기의 기저효과로 인해 2.4% 증가하여, 2022년 중 제조업은 2.7%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과 소비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이

21) 제조업 전망을 통해 공급망 차질로 인한 우리 산업에 대한 리스크,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보호무역 확산이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과의 산업별 경쟁 관계, 산업별 경기 전망을 통한 노동력 수요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주요국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2) 제조업은 2021년 상반기 9.2%, 하반기 4.8%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량 축소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23년 제조업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진입하면서 ‘코로나 특수’ 효과를 누렸던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 바이오헬스 산업 등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2년(2.7%)에 비해 둔화한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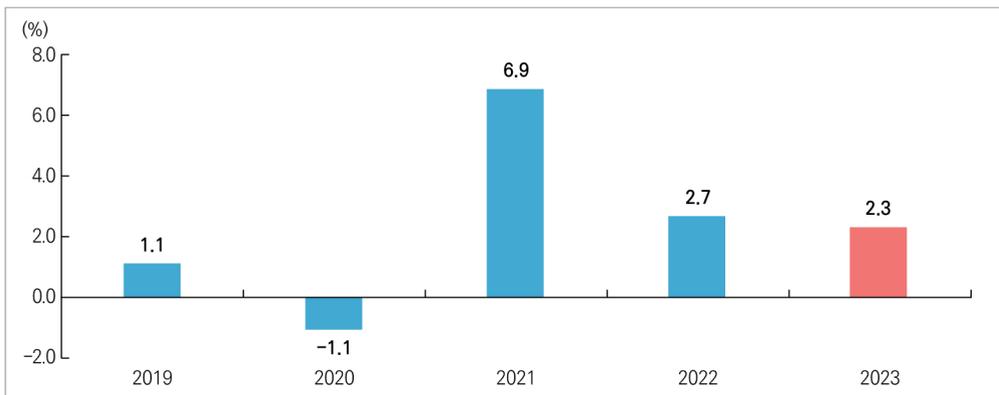
[표 II-6]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연간	2022			2023 연간 ^f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6.9	3.0	2.4	2.7	2.3

세계경기, 인플레이션, 통상환경, 탄소중립 등 2023년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요인을 개별 산업 측면에서 상·하방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공급망 차질 일부 완화, 코로나19의 엔데믹 진입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정책,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내외 수요 위축, 미·중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II-14]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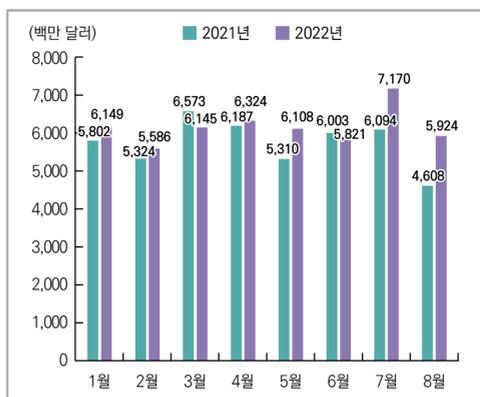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자동차 산업은 2022년 1~7월 중 전년동기간대비 생산(물량)이 9.1% 증가하고, 수출물량은 23.1%, 수출금액은 25.3%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감소(-3.0%)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다소 완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이 증가했다.²³⁾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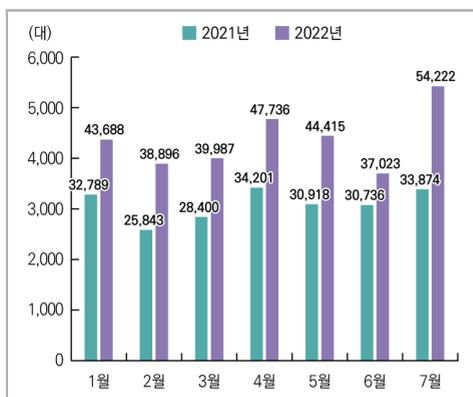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 직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지난 2년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수요 이전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어 있고, 공급 차질도 일부 해소가 예상되며,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 확대 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완성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자동차부품은 주요시장 내 완성차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인해 상승한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이 내년에도 일부 유지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제약을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15] 자동차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1-16] 친환경 자동차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완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공급측면에서 급격한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누적 대기 수요의 증가와 제한적인 신차 공급 회복으로 신차 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자동차 수요국가인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압박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수요 증가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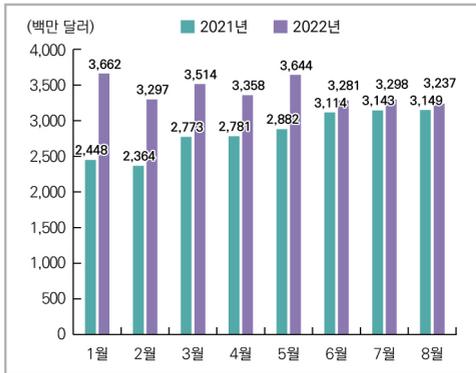
23) 2022년 상반기 중 친환경 자동차는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한 210,474대, 수출물량은 37.7% 증가한 251,878대, 금액은 73.1억달러(42.7%)로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4)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8.15.

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에서 최근 발효(2022.8.16.)된 「인플레이션 감축 법(IRA)」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순위 2위인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국 내 수요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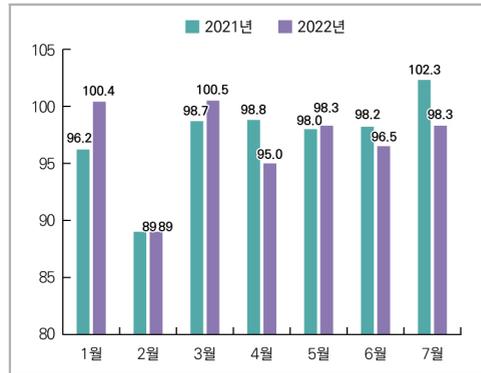
철강 산업은 2022년 1~7월 중 전년동기대비 생산(물량)이 3.4% 감소하였고, 1~8월 중 수출물량은 4.2% 감소, 수출금액은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까지 철강 산업의 수출은 2021년의 호황 흐름세가 유지되며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4월 이후 주요 원자재와 철강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6월 부터는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면서 2022년 철강 산업은 상고하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II-17] 철강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II-18] 철강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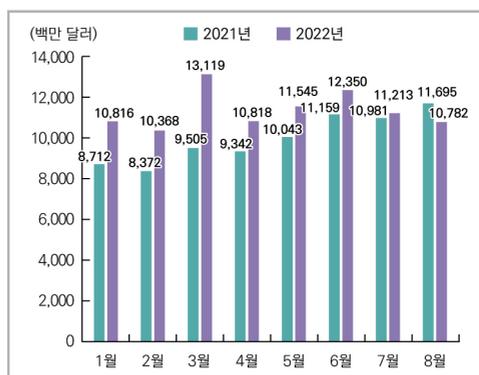
세계철강협회(2022.4.)는 최대 철강 수요국인 중국의 철강 수요가 2022년 9.5억 톤에서 2023년 9.6억 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철강 수요가 2022년 8.9억 톤에서 2023년 9.2억 톤으로 3.5% 증가하면서, 세계 철강 수요량은 2022년 18.4억 톤에서 2023년 18.8억 톤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신흥국에서 철강 수요가 견조하게 성장하고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과 수출 억제에 기반한 철강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철강 산업의 주요 전방산업별 제품의 공급환경은 철강 종류별, 전방시장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냉연강판의 주 수요처인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난의 점진적 해소를 바탕으로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

판의 주 수요인 조선업은 최근의 수주환경 개선이 중장기 성장 동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유가에 힘입은 에너지강(송유관, 유정관, 후육관 등) 수요 호조, 녹색산업에서 창출되는 신수요(태양광 및 풍력 구조물, 배터리 경량소재 등)가 전통산업에서의 회복 지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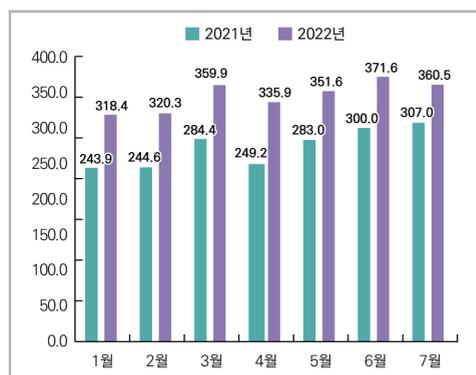
반도체 산업은 2022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생산이 1/4분기 29.2%, 2/4분기 27.3% 증가하였고,²⁵⁾ 1~8월 중 수출물량은 9.0% 감소, 수출금액은 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8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2021년의 호조세가 유지되며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 수출을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둔화됨에 따른 세계 수요의 하락으로 국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26개월 만에 수출금액이 감소로 전환되었다.

[그림 11-19]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1-20] 반도체 생산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세계반도체시장기구(WSTS)²⁶⁾에 따르면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2021년 26.2%에서 2022년에는 13.9%로 하락하고, 2023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PC 수요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이 이어지며 4.6% 성장으로 성장세가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부문의 2022년 세계 수요는 2021년의 30.9% 증가에 비해 대폭 축소된 8.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2023년에는 0.6% 성장하며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5) 통계청, 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15=100)

26) WSTS(The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2022.8.22.

향후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무선통신 분야 등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신규 CPU 출시 지연과 ‘코로나 특수’로 급증하였던 세계 반도체 수요가 하락하면서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재고 증가는 전산업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2/4분기 산업활동동향²⁷⁾의 제조업 재고지수 증가율은 18.0%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4분기(22.0%)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제품’(79.7%),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64.2%),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58.1%), ‘1차 금속’(56.7%) 등의 재고 자산 증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최근의 수요 침체로 인한 출하량 감소도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며, 제조업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모두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출하 감소 폭이 생산 감소 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재고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점은 제조업 전반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2026년 기간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2017~2021)간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후반부터 제조업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향후 5년(2022~2026)은 지난 5년보다 0.3%p 이상 낮은 증가율이 전망된다. 제조업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점차 낮아져 2023년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년 이후에는 우리 산업의 고도화로 제조업 성장이 정체되는 구조적 저성장국면에 진입해 2% 초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다음의 몇 가지 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노동의 대응변수로 제조업 취업자 수, 자본의 대응변수로 민간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 우리 제조업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한 통관수출, 국내 수요의 대응변수로 민간소비, 가격 경쟁력의 대응변수로 환율을 사용하여 전망하였다. 다음 그림은 전망의 전제가 되는 각 요인과 제조업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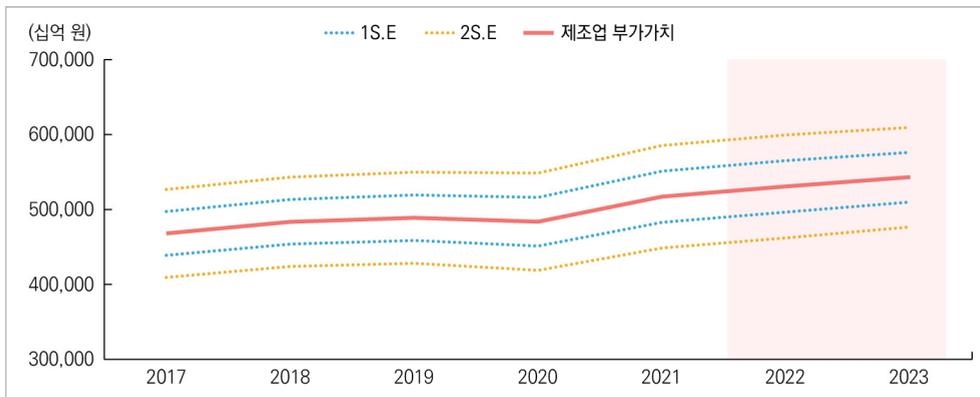
27) 통계청, 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15=100)

[그림 11-21] 제조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1-22]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2장 서비스업



제1절 현황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0% 초반으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
 -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적자 폭이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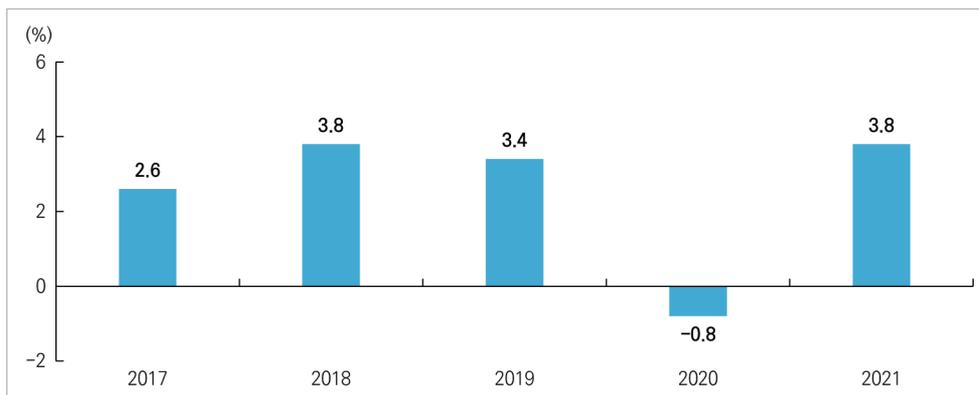
서비스업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타 경제주체나 경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재화를 유통·분배하는 도매·소매·운수·통신업과 금융 및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보험·부동산업, 개인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다. 서비스업의 범위는 단순 노동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요구되고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다른 생산활동을 돕는 것까지 다양하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급속히 변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범위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18년(3.8%), 2019년(3.4%)로 국내총생산 성장률²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폭(-0.8%)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부터 국내 경기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1년 서비스업의 성장률(3.8%)은 국내총생산 성장률(4.1%)보다 낮게 나타났다.

최세중 경제분석관(sjchoi@assembly.go.kr, 6788-4679)

28) 2018년(2.9%), 2019년(2.2%)

[그림 11-23]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최근 5년(2017~2021년)간 서비스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미만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21년 국내 서비스업이 GDP(명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0%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하였으나, 독일(63.0%), 프랑스(70.2%), 영국(71.6%) 등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11-7] 주요국 서비스업의 GDP(명목) 비중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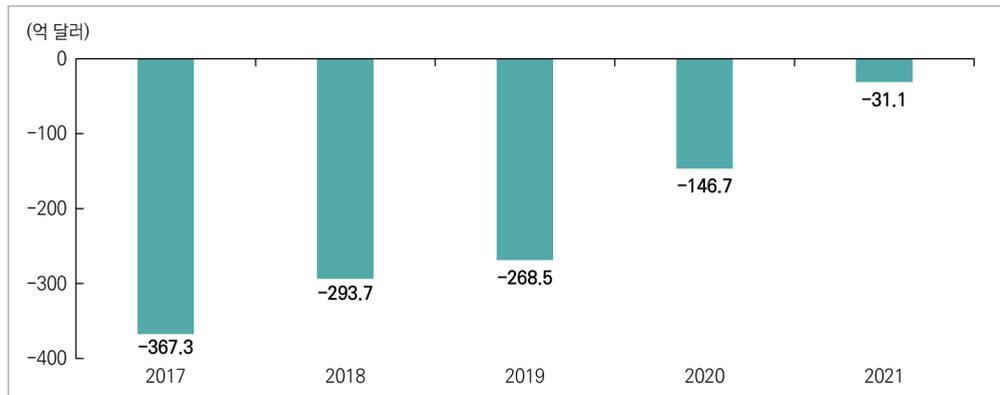
국 가	2017	2018	2019	2020	2021
미 국	77.0	76.7	77.2	80.1	-
영 국	70.9	70.9	70.9	72.7	71.6
프랑스	70.3	70.1	70.0	71.2	70.2
독 일	61.8	62.1	62.3	63.3	63.0
일 본	69.5	69.4	69.4	69.5	-
한 국	54.8	55.7	57.2	57.0	57.0

주: 본 보고서에서는 실질 GDP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국제 비교 자료는 명목으로만 제공됨에 따라 명목으로 서술

자료: THE WORLD BANK DATA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 2021년 서비스 수지 적자는 31.1억 달러로 전년대비 78.8%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적자가 가장 큰 부문은 기타사업서비스²⁹⁾ 부문으로 2021년 12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물류 확대와 수출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운수(154.3억 달러)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그림 II-24] 서비스 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57.2%이었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2021년 62.5%까지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2.5명/10억 원)는 공산품(6.2명/10억 원)의 2배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에 고용이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³⁰⁾ 소비자 서비스업³¹⁾인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교육, 의료·보건·사회복지 등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고 높은 고용 비중을 보이지만, 생산자 서비스업³²⁾인 금융 및 보험, 운수, 부동산 등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낮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9)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경영컨설팅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으로 구성

30) 2019년 산업연관표 연장표

31) 소비자를 위한 최종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

32) 기업 등 생산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업

[표 11-8] 서비스업 업종별 현황(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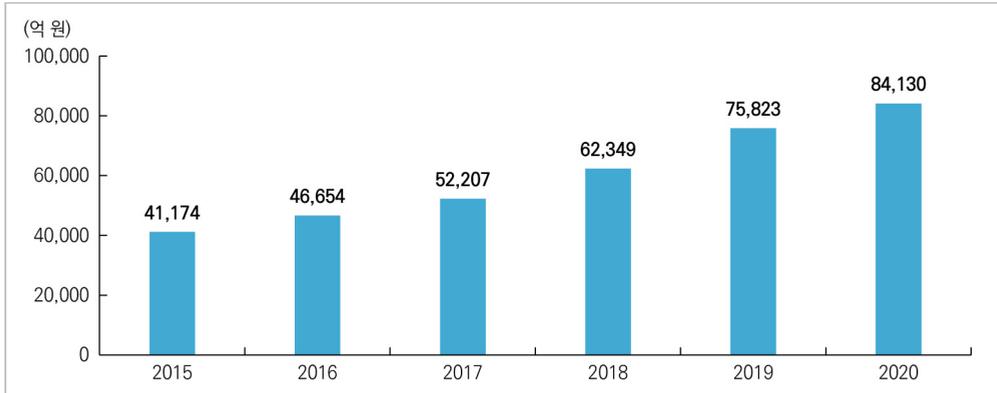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서비스업	62.5	70.1
도매 및 소매업	7.5	17.5
숙박 및 음식점업	2.1	11.0
운수업	3.5	8.3
금융 및 보험업	6.6	4.2
부동산업	7.8	2.8
정보통신업	5.2	4.2
사업서비스업	10.2	7.3
전문, 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업	6.8	6.4
공공행정	7.2	6.0
교육 서비스업	5.2	9.6
의료·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5.2	13.3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2.2	2.4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최근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8.3%, 2018년 9.01%, 2019년 10.6%의 비중을 차지한 후 2020년(8.4조 원)에는 전 산업 연구개발비 중 11.4%의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주요국의 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비중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비율은 36.2%(2018), 영국은 57.1%(2018), 프랑스는 48.5%(2017)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11.4%(2019)를 기록했다.

[그림 II-25]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비스업의 피해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대면 서비스업의 위축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침체로 이어졌다. 2021년 서비스업 전체 종사자(1,460만 명) 중 소상공인은 709만 명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2021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소상공인 비중은 63.2%로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큰 폭(32.6%)으로 감소했다. 도매 및 소매업(200만 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116만 명)도 소상공인 종사자 수 비중이 각각 53.9%, 61.3%로 높은 수준인 가운데, 2021년 도매 및 소매업의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2.6%, 숙박 및 음식점업은 18.4% 감소했다. 운수 및 창고업도 소상공인 비중은 53.1%로 높은 수준이며 2021년 생산은 전년대비 14.1% 감소했다.

[표 II-9] 서비스업의 소상공인 비중과 생산 증감을 비교(2021년 기준)

(단위: %)

업종	생산지수 증감률	소상공인 비중
교육 서비스업	-4.6	67.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2	6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2.6	63.2
숙박 및 음식점업	-18.4	61.3
도매 및 소매업	-2.6	53.9
운수 및 창고업	-14.1	53.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3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	21.4
정보통신업	1.5	18.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3	15.3
부동산업	5.5	11.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9	11.2
금융 및 보험업	14	7.7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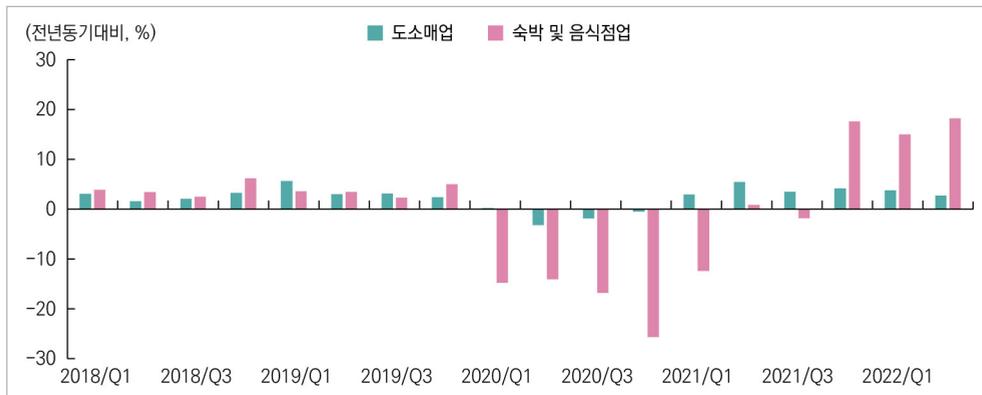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자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생산자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 운수업을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생산활동을 돕는 사업서비스업을 선정하였다.

1.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은 재화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품의 변형 없이 유통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소매업으로 구분된다. 숙박업은 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숙박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점업은 접객 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주류, 다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 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하거나 연회장과 같은 행사장에 출장하여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³³⁾

코로나19 확산 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의 피해가 도매 및 소매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의 생산은 2020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여 저점을 기록한 후 2021년 1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0년 4분기에 24.5% 감소하여 저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2021년 4분기부터 증가세(18.7%)로 전환되었다.

[그림 II-26]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전체 취업자 중 도매 및 소매업 부문의 비중은 20.3%이었으나, 2021년에는 17.5%를 기록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어 동기간 12.2%에서 11.0%로 하락하였다.

33)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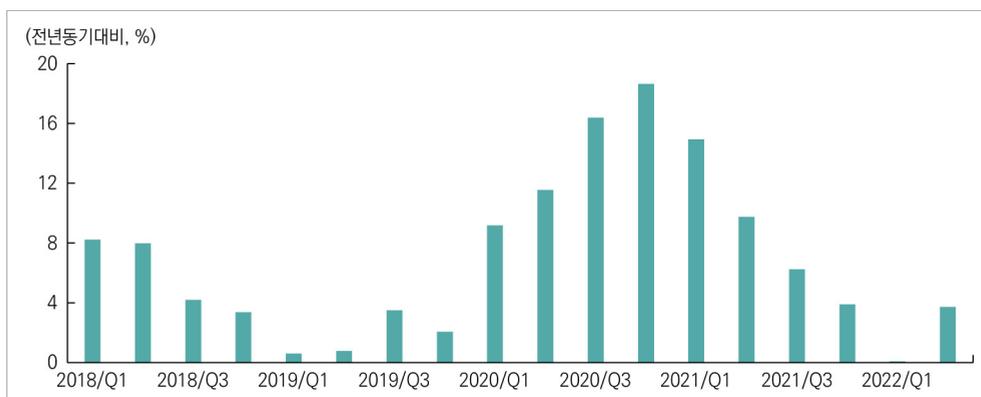
2.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중개 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금융중개 활동은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과 부족을 금융시장을 통해 중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보조적 금융 활동은 금융 활동은 아니지만 이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주는 보조적 활동을 말한다.³⁴⁾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2020년 주식거래 대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는 등 주식거래 및 여수신이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9.9조 원)은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와 금리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하였다.³⁵⁾

전체 취업자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2018년(4.5%)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4.2%를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2022년 1분기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139.5)는 서비스업(102.1)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II-27]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3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35)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2022.8.19.

3. 운수업

운수업은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등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지원·보조하는 화물취급업,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 화물운송 주선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³⁶⁾

2020년 운수업 생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후 2021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020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1% 감소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은 26.8% 감소했다.³⁷⁾

대중교통 이용 통행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통행이 승용차로 전환한 데 기인한다.³⁸⁾ 2021년 승용차 교통량은 전년대비 고속도로(6.3%), 일반국도(1.3%), 지방도(2.1%) 등에서 증가했다. 항공 여객 수송실적도 2020년 58.7%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7.6% 증가로 전환했다. 2020년 컨테이너 화물 수송(전국) 실적도 전년대비 0.43%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3.22% 증가했다. 한편,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지역 봉쇄에 따른 글로벌 교역 차질,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동량이 줄어들어 2022년 상반기 컨테이너 수송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21% 감소했다.³⁹⁾

운수업 취업자 수는 2019년(1.8%), 2020년(3.6%), 2021년(7.0%)에 걸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다. 취업자는 2019년에 14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9월부터는 160만 명을 상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운수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8.3%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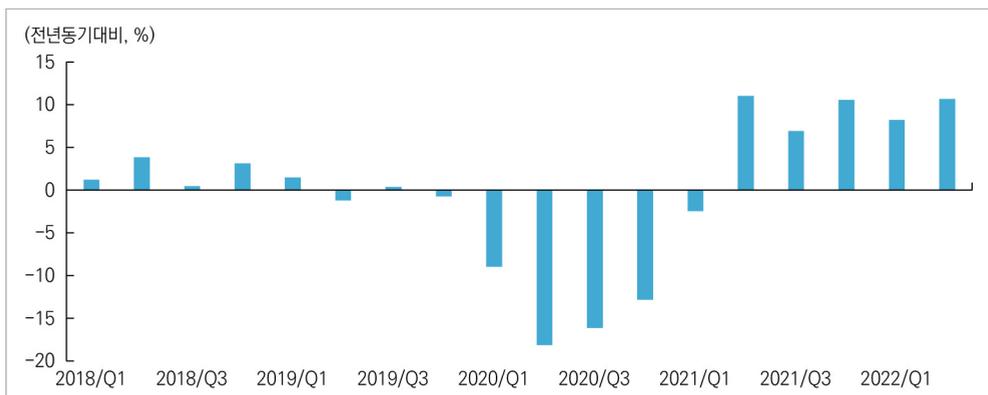
36)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3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코로나-19 영향 12.1% 감소,” 2022.3.21.

38)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3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398만 톤 처리,” 2022.7.21.

[그림 II-28] 운수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4. 사업서비스업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업은 크게 전문·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스(사업관련 전문서비스, 연구개발, 건축 및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 등)와 사업지원서비스(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장비 및 용품 임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등)로 구분된다.⁴⁰⁾

사업서비스업 국제수지 적자는 전체 서비스업 국제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0년 사업서비스업 적자는 전체 서비스업 적자의 66.4%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도 사업서비스업의 국제수지 적자는 전체 서비스업 적자(-31억 달러)의 4배 이상(-112.2억 달러)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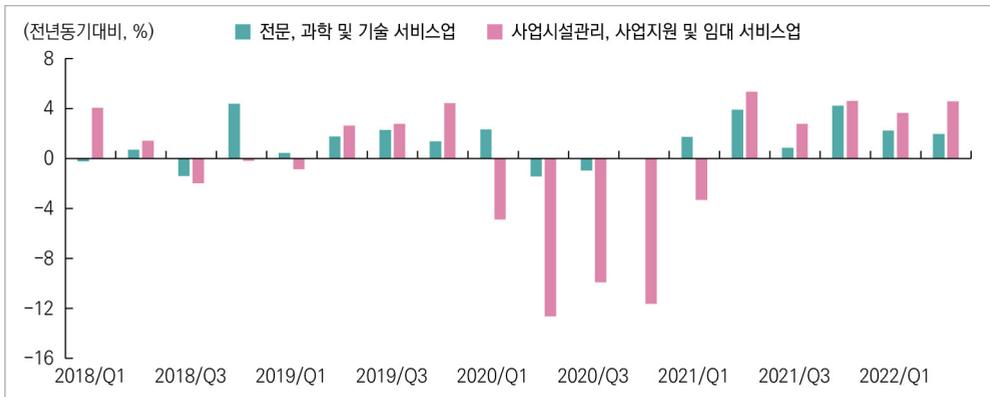
반면,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지수는 2021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과학 및 기술관련 부문의 생산 증감률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도 전년 대비 -1%대를 기록하며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사업서비스업(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6.2%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57.2%, 2021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누적) 전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62.8% 감소하였으나, 사업서비스업 부문은 전년동기 대비 43.2% 증가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과학 및 기술관련 서비

40)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스 취업자의 비중은 2019년(6.1%), 2020년(6.2%), 2021년(6.4%)에 걸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지원서비스 취업자의 비중도 2019년(6.9%), 2020년(7.2%), 2021년(7.3%)에 걸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II-29] 사업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제2절 2023년 전망⁴¹⁾

• 2023년 서비스업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2017~2021	2022~2023
3.8	3.3	2.2	2.6	2.8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엔데믹(Endemic) 진입으로 소비심리 개선	○ 물가 상승
○ 신기술 발전으로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 금리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 둔화

2022년 상반기 중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6.1%), 운수업(7.7%)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에 이은 백신 접종 진척⁴²⁾과 상반기 수출 호조 등으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온·오프라인 업태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은 상승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하반기 중 서비스업은 2.4% 증가하여, 2022년 중 서비스업은 3.3%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서비스업은 국내 경기변동,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가 팬데믹 기간 중 나타났던 특수가 줄어들면서 2022년(3.3%)에 비해 둔화한 2.2% 증가하고, 지난 5년간(2017~2021년) 증가율(2.6%)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41) 서비스업 전망을 통해 향후 서비스 업종별 경기 예측, 서비스업 부문별 취업자 수 및 노동력 수요 등 고용 관련 전망, 서비스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요 전망 등에 사용함으로써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업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 생산성 제고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산업의 정보화·표준화 지원, 서비스 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관한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2) 접종 현황(2022년 9월 19일 기준): 1차 접종 현황(45,110,526명), 2차 접종 현황(44,674,106명), 3차 접종 현황(33,583,565명)

2023년 서비스업은 국내 경기변동,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등락을 보이다가 팬데믹 기간 중 나타났던 특수가 줄어들면서 2022년(3.3%)에 비해 둔화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은 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2023년 전망치를 결정할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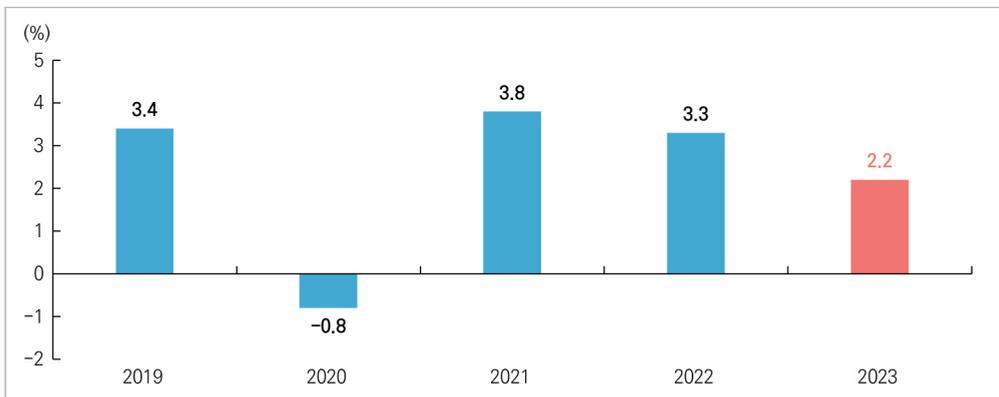
[표 II-1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연간	2022			2023 연간 ^f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3.8	4.2	2.4	3.3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II-30] 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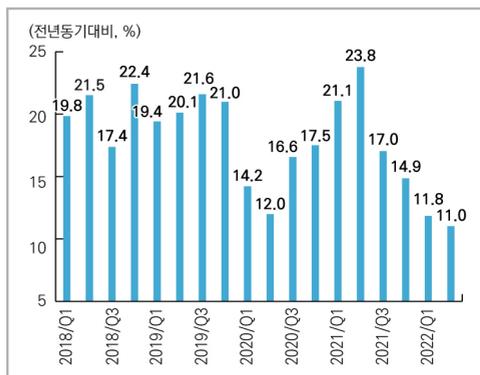
2023년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백신 보급 이후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 인상과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비대면 소비, 방역의 확대로 온라인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등의 보편화로 2022년 상반기 온라인 유통은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11.4% 증가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음식료

품 매출 비중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시장의 음식료품 매출 비중이 2018년 1분기 9.4%에서 2022년 1분기 14.1%로 4.7%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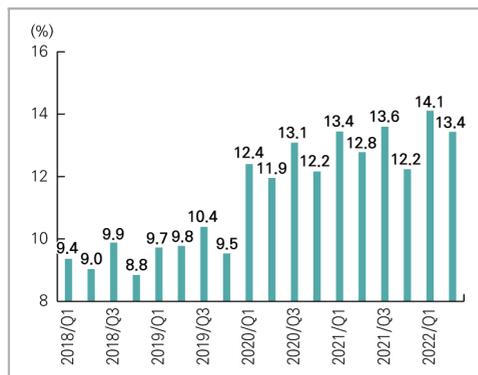
2022년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도 백화점(18.4%), 편의점(10.1%) 등이 회복세를 이어가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했다. 백화점은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아동·스포츠, 남성의를, 여성정장 등을 중심으로 전 품목에서 판매호조를 나타냈다. 다만, 2021년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높았던 명품·가전 매출 등의 성장률은 기저효과로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도 학교 등교 및 직장 근무 등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용객 수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2022년 1분기(9.5%), 2분기(10.6%) 이어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림 II-31] 온라인쇼핑 매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I-32] 온라인쇼핑 음식품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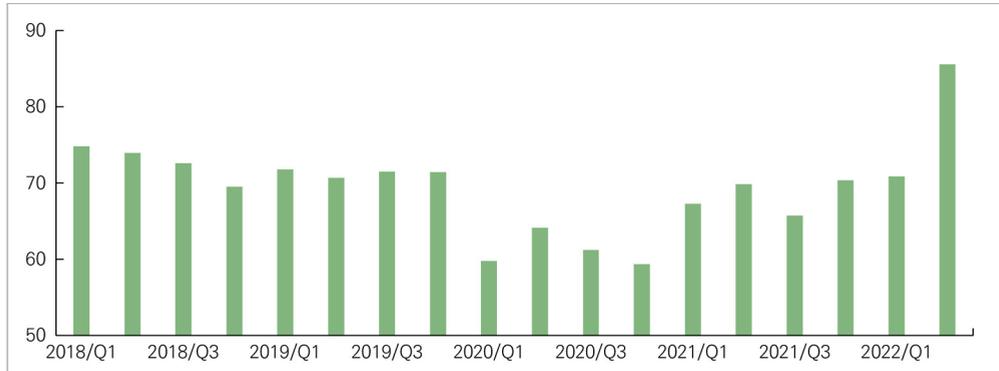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은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나, 일상회복이 본격화 되면서 소비지출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 소비지출액은 2021년에 백신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으며, 2022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하였다.

음식점업은 팬데믹으로 급부상한 음식배달업의 소비자 이용이 확대되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식 경기의 회복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인 밀키트(Meal Kit) 등의 판매가 늘고 위축됐던 음료·주류 등의 수요가 회복되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의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⁴³⁾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

운데, 2022년 2분기 지수는 1분기 대비 14.72p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상승이 체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그림 II-33]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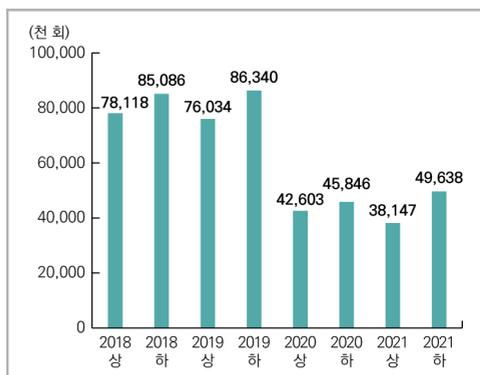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숙박업은 2021년 하반기부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여행심리 회복으로 여행객의 숙박 횟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8.3%)로 전환되고, 관광지출액이 증가하는 등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43)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100보다 낮을 경우 전년도 동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34] 국내 숙박여행 횟수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1-35] 국내 방문자 수 및 관광지출액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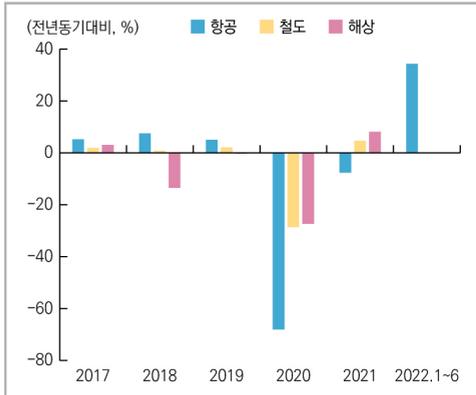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2023년 운수업은 국경개방과 각국의 여행제한 정책이 폐기되면서 여객 부문의 실적 회복이 예상되나, 화물운송 부문은 글로벌 경기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는 여객 부문의 항공수요가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2024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2년 상반기 항공 여객(2,200만 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4.3% 증가했다. 철도 여객과 국내 여객선 수송실적도 2021년에 각각 전년대비 4.6%, 8.1% 증가하여 2022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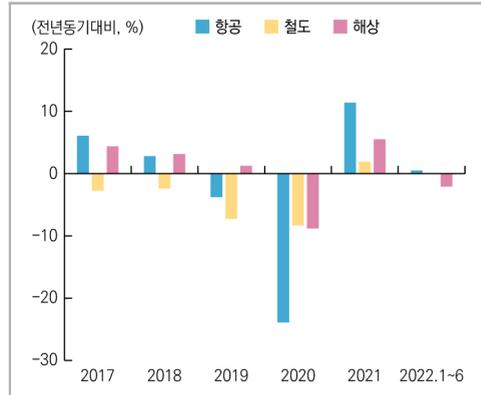
화물운송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따라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항공화물은 국내 화물운송이 전년동기대비 20.0% 증가했으나, 국제 화물운송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재 수요 둔화로 수출물량이 감소하여 2022년 상반기 항공화물운송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해상화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지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하였다.

[그림 II-36] 국내 여객수송 증감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림 II-37] 국내 화물운송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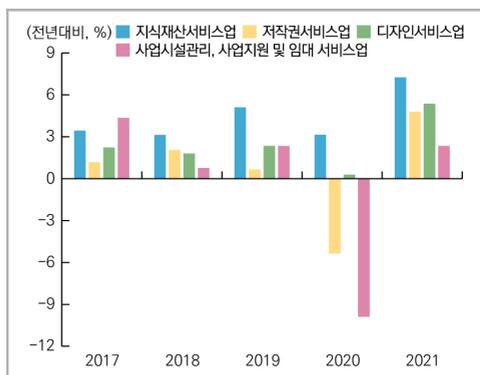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지식기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이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사업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업종이면서 상대적으로 대면접촉의 필요성이 낮은 전문·과학 및 기술 부문인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디자인서비스업 등은 코로나19를 전후로 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저작권서비스업도 증가로 전환되어 사업서비스업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서비스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부문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이고 기술 숙련이 덜 필요한 단순노무직이 산업 내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⁴⁴⁾ 최근 사업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업종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저부가가치 업종에서는 노동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은 증가세가 이어지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2018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감소 폭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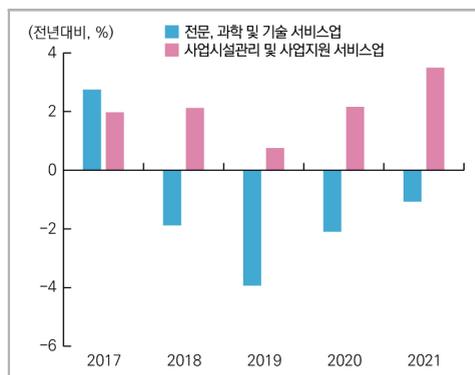
44) 방글,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시장 특성 및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21.

[그림 II-38] 사업서비스업 관련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II-39] 사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23년 금융 및 보험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에 따른 미국과 EU 등의 통화정책 긴축속도가 빨라 대외경제 리스크 및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불균형 관련 리스크 촉발 시 예상되는 대손비용의 발생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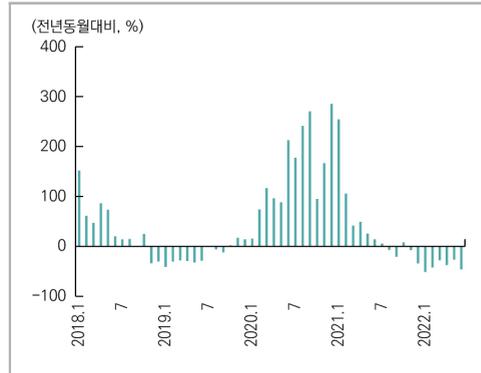
최근 이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대금도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6월 주식거래대금은 전년동월 대비 46.2% 감소하는 등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0] 가계대출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1] 주식거래대금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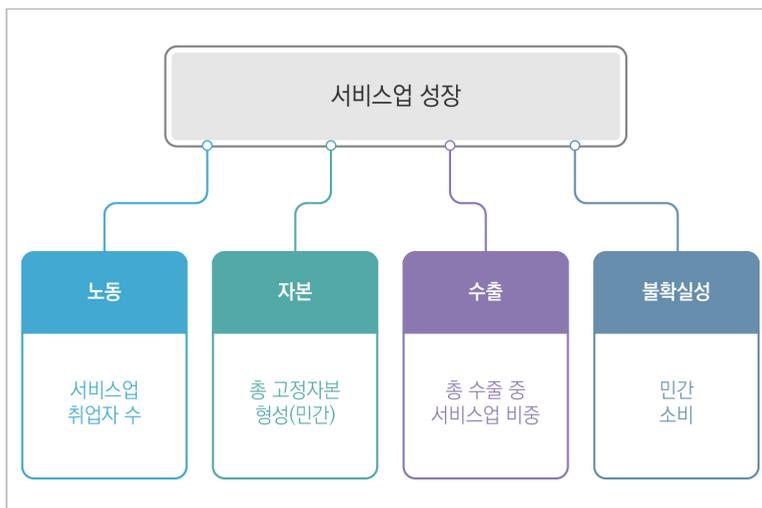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인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및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소비심리 개선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대면·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산업구조도 다변화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 KIBS)의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통화 긴축,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중국경제 둔화 등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의 해소가 불확실할 경우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업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성장률 부문은 총고정자본형성⁴⁵⁾(민간), 노동성장률 부문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로 살펴볼 수 있다. 민간소비는 경제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비대면 방식 확대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글로벌 서비스업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수출 비중은 서비스업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 그림은 서비스업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과 서비스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45)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정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산출물을 고정자산이라 하고, 고정자산은 1년 이상 생산활동에 쓰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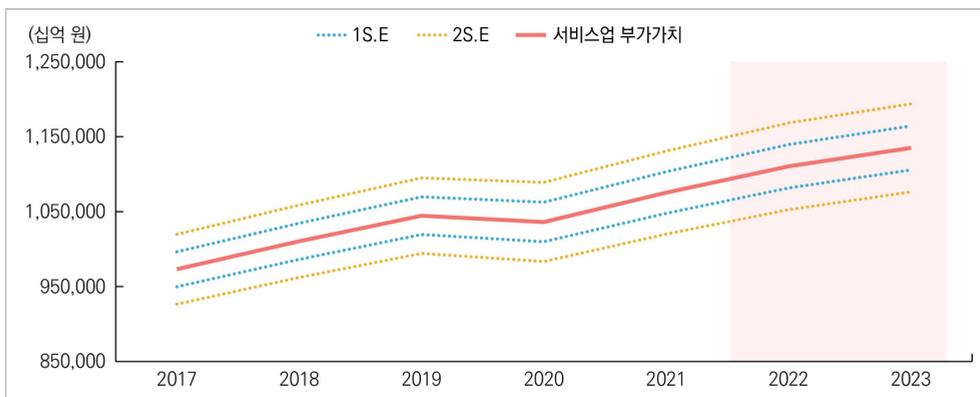
[그림 II-42] 서비스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은 서비스업 성장에 대한 전망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43]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3장 건설업



제1절 현황

• 2022년 상반기 건설업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에도 공급측 요인의 경기하방 압력으로 인하여 감소
- 경기하방 압력의 점진적 완화 및 정부의 주택공급 확장 기조로 인하여 향후 건설경기의 반등 예상

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종합공사업과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의 전문공사업을 포함한다.⁴⁶⁾ 국민계정상의 건설업은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업은 신규시장진입이 비교적 용이하며 건설경기 변동에 따라 신규진입 및 도태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은 광범위한 투입재화, 인력과 기술 등의 결합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종합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활동과 연관되어 상호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내총생산 중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의 유발효과가 높아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의 개발계획 및 제반 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조절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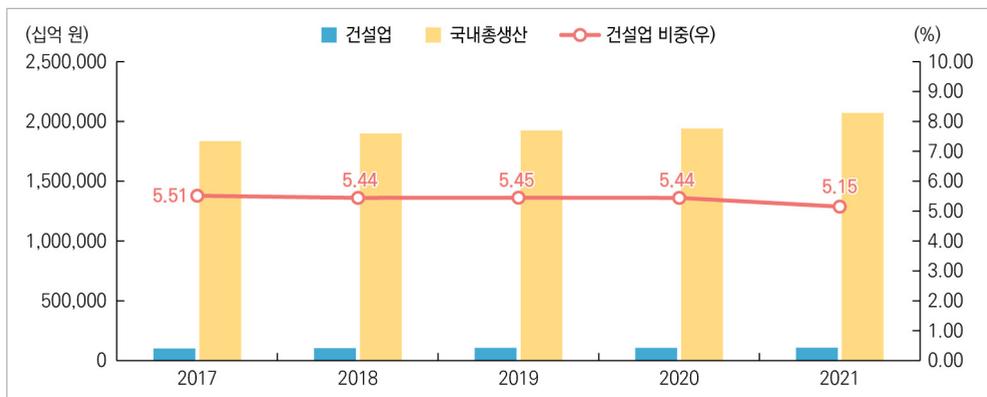
한국 건설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5%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에 있어

김용균 경제분석관(kimyk0909@assembly.go.kr, 6788-4791)

4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조, 시행령 별표1 참조

서는 타 부문 대비 높은 파급효과를 보인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연관표」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⁴⁷⁾는 1.955로 다른 부문 대비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유발계수⁴⁸⁾는 0.81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며 고용유발계수⁴⁹⁾ 또한 8.4로 서비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44] 국내총생산 중 건설업 비중



자료: 한국은행

- 47)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를 말한다.
- 48) 부가가치유발계수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말한다.
- 49) 고용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임금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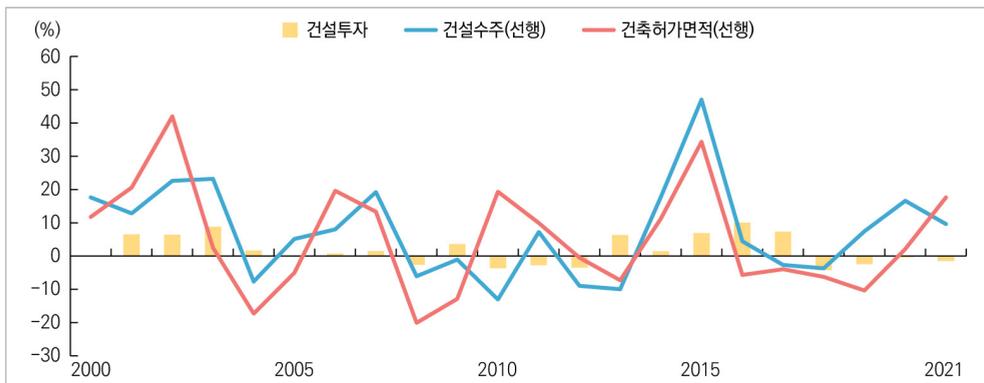
[표 II-11] 부문별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농림수산업	1.760	1.798	1.843	0.854	0.840	0.840	4.2	4.2	4.2
광산업	1.842	1.905	1.915	0.894	0.881	0.884	8.2	7.8	7.3
제조업	1.898	1.887	1.903	0.648	0.635	0.638	4.9	4.7	4.7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36	1.575	1.596	0.598	0.538	0.565	3.4	3.4	3.5
건설	1.972	1.954	1.955	0.811	0.811	0.815	8.5	8.5	8.4
서비스	1.681	1.685	1.684	0.877	0.873	0.873	9.9	9.4	9.2
전산업	1.795	1.790	1.791	0.780	0.773	0.780	7.7	7.4	7.4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계획, 설계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건설활동이 긴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경기의 저점과 정점이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모습을 보인다. 건설경기의 현황을 보여주는 건설투자에 앞서 움직이는 건축허가, 건설수주 및 건축착공 등과 같은 건설활동 관련 선행지표들을 살펴보면 현재 건설경기는 확장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⁵⁰⁾ 건설경기 순환변동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공급확대 기조는 건설경기의 확장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5] 건설경기 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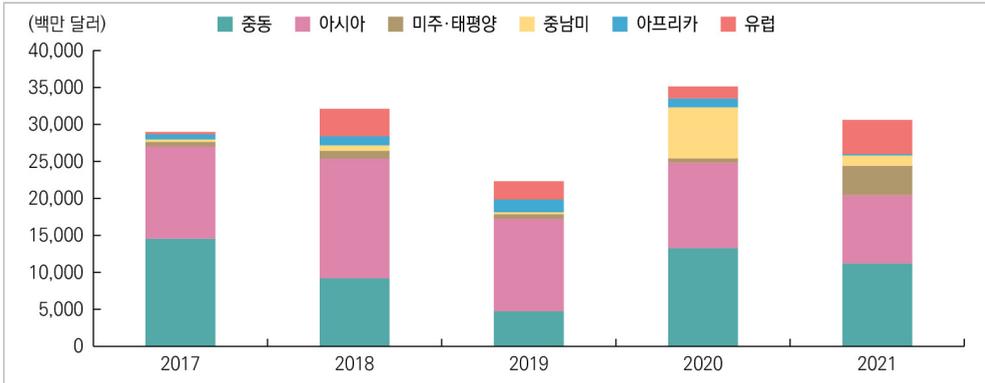
50) 한국은행,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계약 요인을 중심으로」, 2022. 6. 13.

건설경기 지표들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 건설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선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책의 확장기조는 이런 확장국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확장국면에 들어선 건설경기는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다만, 최근의 건설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확장적 기조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상승 압박 등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경제 하방 압력들이 공급측면에서 건설투자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숙련된 노동력 부족, 건설 관련 정책 및 규제 변화 등이 공급측면에서 건설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감소와 함께 이러한 공급측 제약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⁵¹⁾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21년(10.9조 달러) 대비 5.5% 증가한 1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전년대비 10.7%의 성장을 보인 추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원자재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금리 인상 압박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계 건설시장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한국의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2.8% 감소한 3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동 112.2억 달러, 아시아 92.5억 달러, 북미 39.3억 달러, 유럽 45.9억 달러, 중남미 1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주 지역인 중동 및 아시아 수주가 전년대비 각각 15.8%, 20.1% 감소한 것이 2021년 해외건설 수주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종별 수주액은 전년대비 토목이 38.9% 감소한 58.6억 달러, 건축이 55.1% 감소한 41.0억 달러, 플랜트가 3.7% 감소한 1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2년 해외건설 수주는 2021년 대비 4.6% 증가한 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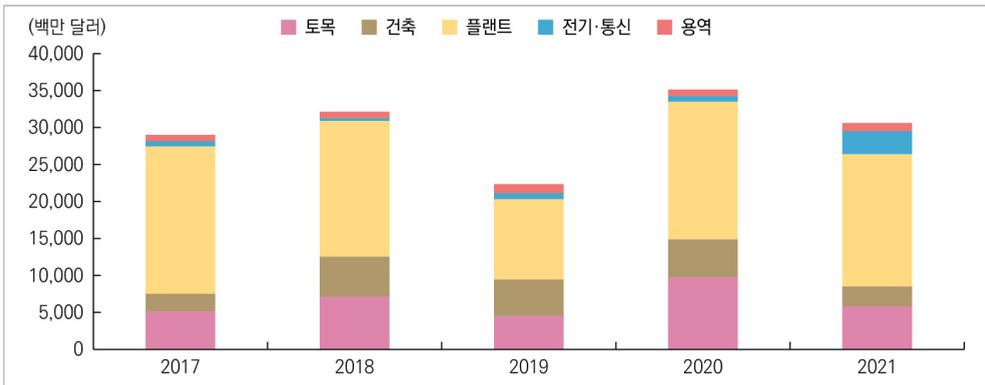
51)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상반기 해외건설 산업동향」, 2022.5.27.

[그림 11-46]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자료: 해외건설협회

[그림 11-47]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동향



자료: 해외건설협회

제2절 2023년 전망⁵²⁾

- 2023년 건설업은 0.1% 감소하며 전년보다 감소 폭이 축소될 전망

(전년대비, 평균, %)

2021	2022	2023	2017~2021	2022~2023
-2.6	-1.7	-0.1	-0.7	-0.9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 건설경기 확장국면	○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 주택공급 확대 기조 정부정책	○ 원자재, 노동력 확보 곤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공급망 교란, 금리인상 등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자재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상반기 중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하반기 들어 일부 자재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음에도 주요 자재 가격은 여전히 급등한 상황이며, 노임 및 기계장비 임대료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⁵³⁾ 이러한 이유로 2022년 하반기 건설업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경기는 경기순환에 있어 확장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기 하방압력의 영향으로 2022년 건설업은 전년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는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정부의 공급확장 기조의 효과로 건설업 성장은 감소세가 완화되며 전년대비 0.1%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건설자재 가격상승은 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측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호한 선행지표 및 건설 관련 심리지표의 개선 추세는 건설경기 회복을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관련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조심스러운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중간재 가격의 정상화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⁵⁴⁾ 따라서 해외 하방 압력이 점차 해소되더라도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52) 건설업 부문 전망을 통해 향후 부동산 경기 예측, 건설업 취업자 수 추정 등 고용 관련 전망, 철강, 시멘트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의 수요 전망 등에 사용함으로써 정책입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72호, 202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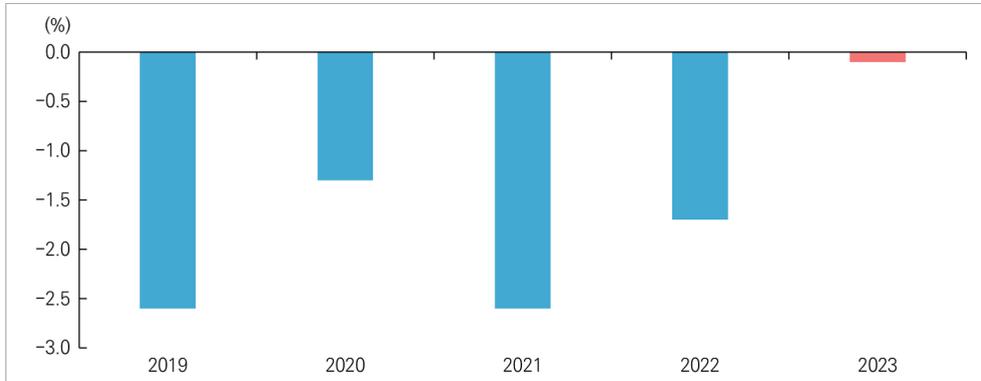
54) 한국은행,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2022. 3. 29.

[표 II-12]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연간	2022			2023 연간 ^f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2.6	-1.4	-2.0	-1.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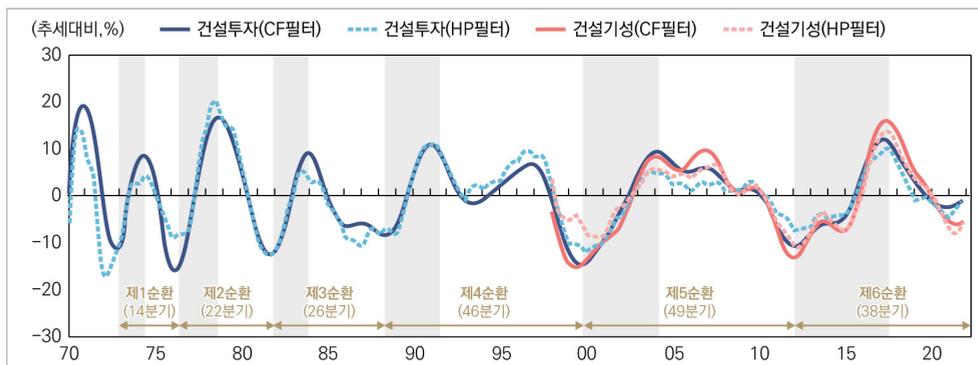
[그림 II-48] 건설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상방 요인) 건설경기 지표를 살펴볼 때, 확장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이러한 확장기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금리상승 압박 등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또한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감소하면 원자재가격 상승과 투입요소의 공급망 교란 등 공급측 불안요소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보다 뚜렷한 건설경기 회복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건설선행지표들이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 관련 심리지표들도 반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기에 향후 건설업은 수요측 요인들 또한 회복세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9] 한국의 건설경기 순환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20호

건설경기는 건설활동의 완료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며, 정부 정책 기조의 지속성도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확장적 추세가 자리 잡으면 이러한 추세가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⁵⁵⁾ 이는 건설경기의 순환변동을 주도하는 건물건설의 평균 공사기간이 3년에 이르며 정부의 부동산 공급 관련 정책 기조 또한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이다.

[표 II-13] 건물건설의 공사기간

(단위: 개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평균 공사기간	33	33	14	15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20호

[표 II-14] 건설경기 순환 주기

	전체	확장기	수축기
1순환기(73. 1/4~76. 2/4)	14분기	6분기	8분기
2순환기(76. 2/4~81. 4/4)	22분기	9분기	13분기
3순환기(82. 1/4~88. 2/4)	26분기	8분기	18분기
4순환기(88. 3/4~99. 3/4)	46분기	12분기	34분기
5순환기(00. 1/4~12. 1/4)	49분기	17분기	32분기
6순환기(12. 2/4~)	38분기 내외	21분기	17분기 내외
평균	32.5분기	12.2분기	20.3분기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2-20호

55) 한국은행,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2022. 6.13.

(하방 요인) 원자재가격이 2022년 정점에 이르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긴 시간 차이를 고려한다면, 높은 원자재가격의 영향은 원자재가격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상장 건설기업 실적에서 매출액 증가율은 크게 확대되지만, 높은 원자재가격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은 거의 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⁵⁶⁾ 높은 원자재가격이 건설투자 위축 뿐 아니라 건설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⁵⁷⁾ 더욱이 최근의 금리상승 압박은 건설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준금리 25bp(0.25%p) 상승 시 건설투자는 1차연도에 평균적으로 0.07~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건설업의 공급측 하방 요인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급격한 금리상승 압박 등과 같이 미리 대처하기 힘든 이례적 상황들의 복합적인 효과로 인한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구조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그 현상이 종료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경제여건도 차츰 정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15] 세계은행 원자재가격 전망

원자재	2020	2021	2022	2023	2024
석탄 (호주, \$/mt)	60.8	138.1	250.0	170.0	154.7
원유 (브렌트, \$/bbl)	42.3	70.4	100.0	92.0	80.0
철광석 (\$/dmt)	108.9	161.7	140.0	105.0	90.0

주: 명목 US 달러로, mt는 메트릭 톤(metric ton), bbl은 배럴(barrel), dmt는 건식 메트릭 톤(dry metric ton)을 의미

자료: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2022년 4월

건설업은 국민계정, 건설경기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건설업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을 통해 한국경제 성장의 추세를 보고, 건설수주를 선행지표로 활용하였다. 원자재가격 변화를 건설업 부가가치 추이 설명을 위하여 사용했다. 불확실성 대응변수로는 민간소비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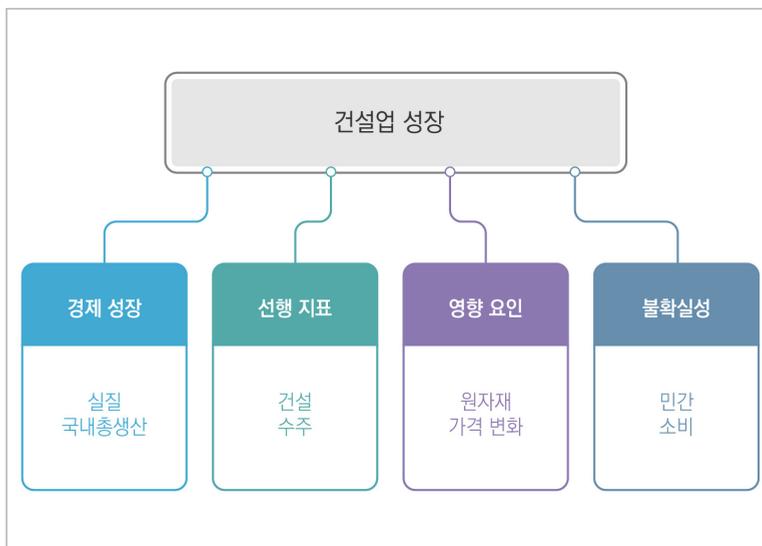
5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 영향 점검」, 2022. 6.30.

57) 한국은행,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2022. 3.29.

58) 한국은행,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2022.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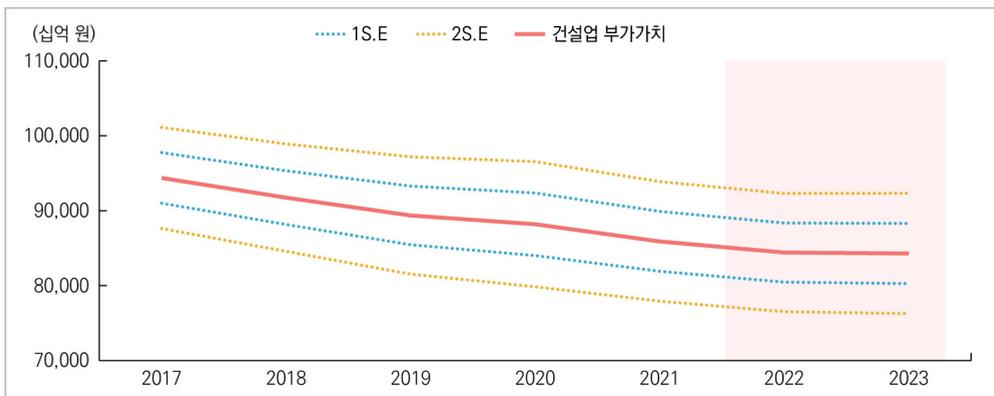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건설업 생산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과 건설업 생산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50] 건설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11-51] 건설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제4장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1절 현황

- 2022년 상반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대비 2.9%p 증가한 2.5%, 전년동기대비 2.1%p 낮은 2.2%를 실현
 - 전기업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을 중심으로 전력 판매량이 전기대비 7.9%,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
 - 가스업과 수도사업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LNG 가격 상승과 강수량 감소 등으로 전기대비 -2.3%, -1.3%를, 전년동기대비 2.0%, -2.1%를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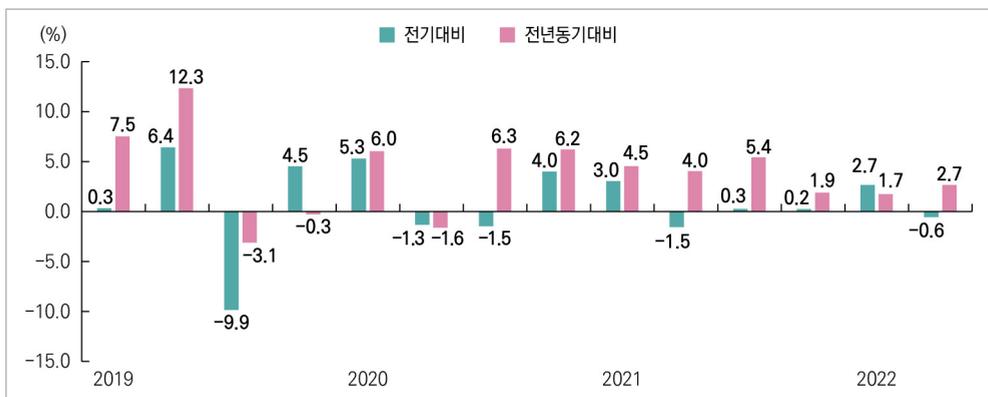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전력 발전 및 송·배전 사업, 연료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 사업, 증기·온수·냉수·냉방 공기의 생산·공급 사업, 상수도 및 산업 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 사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이다.⁵⁹⁾ 국민계정상 전기업, 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이하 가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이하 수도사업)으로 구분된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2021년 기준 실질GDP 대비 2.5%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와 상하수도 등을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은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방지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종 수요보다 타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받으며 냉난방용 수요에 따라 계절적 편차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연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정책과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산업이다.

조은영 경제분석관(dolkongs@assembly.go.kr, 6788-4676)

59) 부산향토문화백과 참조

2022년 상반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4분기에는 전기대비 2.7%,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0.6% 감소하였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분기에 1.7%, 2/4분기에는 2.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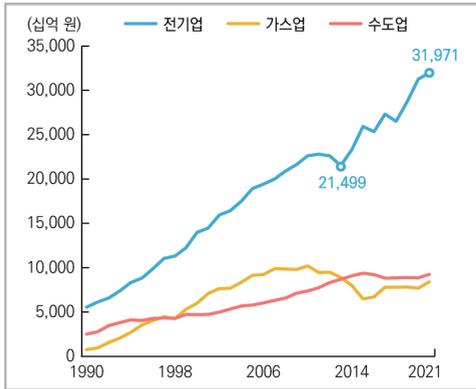
[그림 II-5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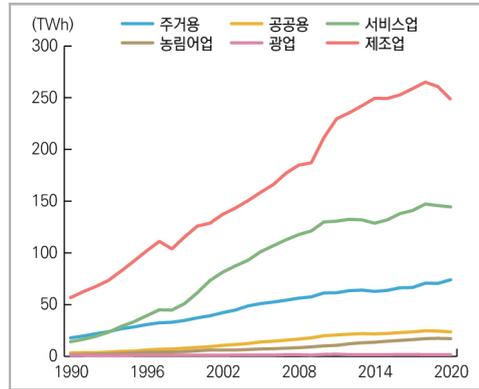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8.5%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0.5% 감소하였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분기에 6.2%, 2/4분기에 8.7% 증가하였다. 이는 4월 18일을 기점으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민간소비가 1/4분기 -0.5%에서 2/4분기 2.9%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을 중심으로 전력 판매량이 2.2%로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력판매량은 2021년 기준으로 533TWh이며, 제조업이 49.2%, 서비스업 및 기타가 27.8%, 가정용 14.5%, 공공용 4.7%, 농수산업 3.5%, 광업 0.3%를 차지한다.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전력 판매량은 2022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2%, 2/4분기 6.6%로 전체 증가율(1/4분기 4.5%, 2/4분기 3.4%)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5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추이



주: 실질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54] 용도별 전력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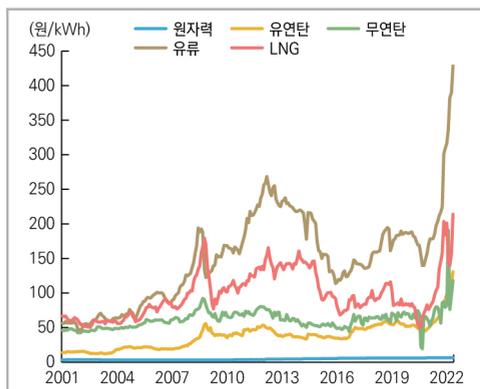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거래소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하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3.9%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1.4% 증가하였다. 1/4분기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은 난방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 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가스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한편 가스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1%, 2/4분기에 0.3% 증가하였다. 이는 저탄소 정책에 따라 전력 생산에 필요한 LNG 가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저탄소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발전원으로서 LNG의 비중이 2017년 22.8%에서 2021년 29.2%로 증가한 반면, 석탄의 경우 43.1%에서 34.3%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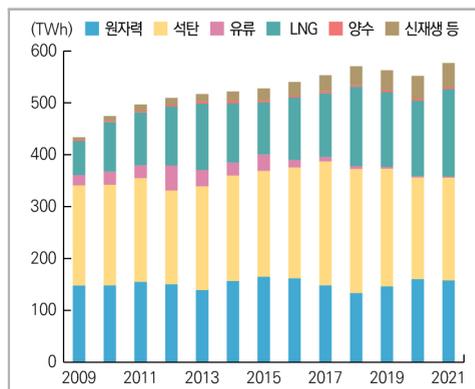
60) 산업용 가스의 경우 2013년 3월 이후 가격연동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제 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 11-55] 전력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1-56] 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자료: 한국전력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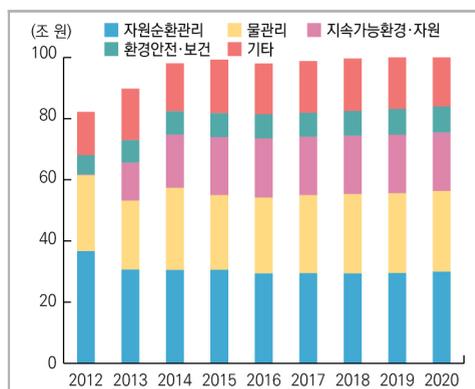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이하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4분기에 전기대비 1.0% 증가하고, 2/4분기에 1.5%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사업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0.5%, 2/4분기에 3.4% 감소하였다. 이는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상반기 건축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건축업 폐기물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 수도권 폐기물 직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도사업의 매출액은 2012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4년 GDP 대비 2.4%에서 2020년 GDP 대비 5.2%로 증가하였다. 세부 기능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자원순환관리 30조 원(29.6%), 물관리 26조 원(26.0%), 지속가능환경 및 자원 19조 원(18.8%), 환경안전 및 보건 8조 원(8.3%), 기타가 17조 원(17.2%)를 차지한다.

[그림 11-57] 수도사업의 매출액 추이



자료: 환경부

[그림 11-58] 부문별 수도사업의 매출액 추이



자료: 환경부

제2절 2023년 전망⁶¹⁾

-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1.7%)보다 0.4%p 높은 2.1% 증가할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1	2022	2023	2017~2021	2022~2023
4.0	1.7	2.1	3.4	1.9

- 주요 변동 요인

상방 요인	하방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전력과 가스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공급망 불안 지속, 세계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제조업의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과 내수 둔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감소로 서비스업의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높아진 LNG가격으로 인해 발전용 수요 감소

2022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1.7% 증가할 전망이다.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위드코로나 이후 회복⁶²⁾되었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력수요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던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하반기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EU 지역의 생산 차질 및 수입 둔화,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 등으로 중국, 미국, 유럽지역으로 수출이 4.6%로 전년대비 5.3%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⁶³⁾ 이에 따라 하반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전력수요 증가세가 상반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전망을 통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수급 변화 파악과 주요 결정요인(경제성장, 에너지가격, 기온변화, 저탄소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62) 민간소비가 2022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0.5%에서 2/4분기에 2.9%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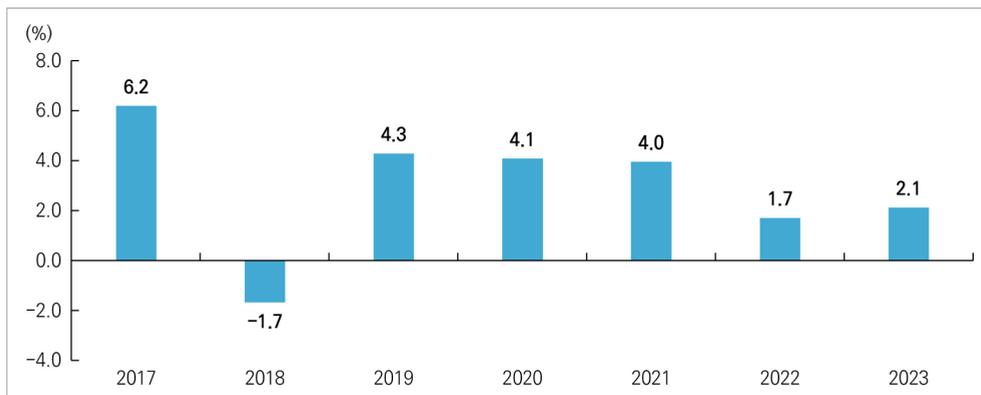
63)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9.

[표 II-1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21 연간	2022			2023 연간 ^f
	상반기	하반기 ^f	연간 ^f	
4.0	2.2	1.2	1.7	2.1

[그림 II-5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실질 부가가치 전망



자료: 한국은행

2023년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는 전기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도 기저효과와 냉난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와 저탄소 정책에 따른 LNG 수요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기인한다.

2023년 전망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하방 요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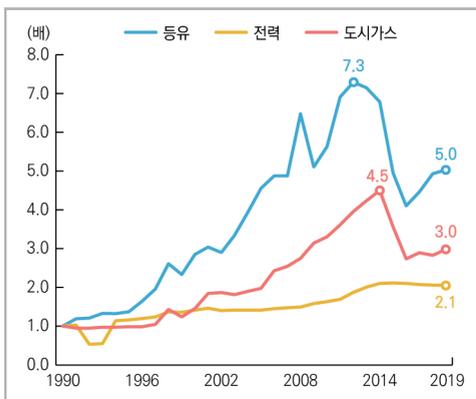
(상방 요인) 상방 요인은 석유 및 석탄의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전력의 수요 증가, 연평균 기온상승에 따른 냉방용 전력 수요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가격 및 변동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등유와 천연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1990년에 비해 각각 5.0배, 천연가스는 3.0배 증가한 반면, 전력은 2.1배 증가에 그쳤다. 등유와 천연가스의 소비자 가격은 등락폭도 커, 2012년 등유가격은 1990년 대비 7.3배, 2014년 천연가스가격은 1990년 대비 4.5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최종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별 비중이

석유는 1990년 60.6%에서 2018년 50.2%로, 석탄은 16.0%에서 13.9%로 감소한 반면, 전력은 10.9%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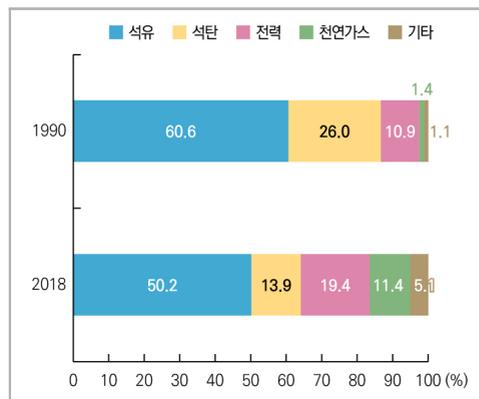
또한 전기사용기기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전기와 천연가스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기(43.9%)와 천연가스(31.4%)가 건물 에너지 부문에서 2018년 기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최종에너지의 비중은 산업 부문 61.4%, 건물부문 20.2%, 수송 부문 18.4%를 차지한다.

[그림 II-60] 에너지원별 소비자가격 추이



주: 도시가스는 산업용 기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그림 II-61] 최종에너지 소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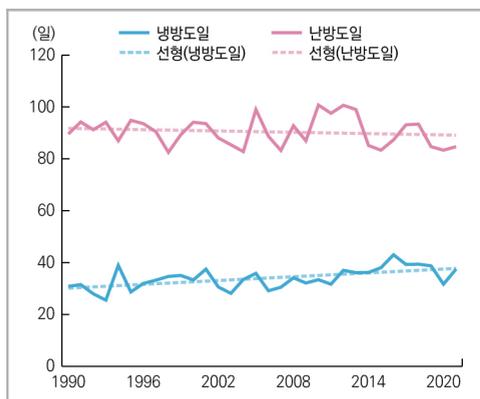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편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난방도일⁶⁴⁾은 1990년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90.7일에서 2000년대 89.4일, 2010년 91.1일로 변동이 크지 않은 반면, 냉방도일⁶⁵⁾은 1990년대 31.8일에서 2000년대 32.5일로, 2010년대 36.8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과 2018년의 경우 여름 폭염으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난방도일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18℃)의 차이를 일별로 누적한 값으로,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춥다는 것과 난방을 위한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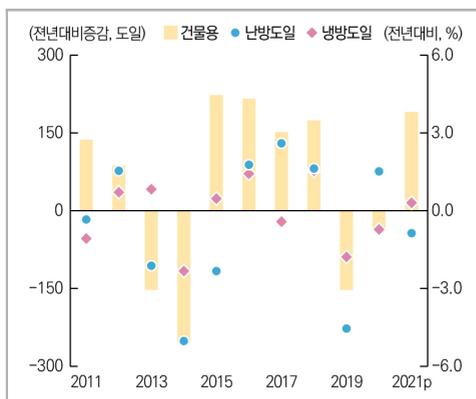
65) 냉방도일은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24℃)의 차이를 일별로 누적한 값으로,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덥고 냉방을 위해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참조)

[그림 II-62] 냉방도일과 난방도일 추이



주: 서울 기준
자료: 기상청

[그림 II-63] 냉난방도일 증감과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증가를 추이



자료: 에너지연구원

(하방 요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하방 요인으로 공급망 회복 지연과 세계 경기둔화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둔화, 내수 둔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성장률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따른 LNG 가격의 상승 지속 등을 들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둔화 정도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IMF 전망(2022년 7월 기준)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2%에서 2023년 2.9%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연초 전망치에 비해 각각 0.4%p, 0.7%p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고물가의 지속과 긴축적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에 1.0%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2022년 4.6%에서 4.1%로,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은 2022년에 2.7%에서 2.3%로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도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면서 2022년 2.4%에서 2023년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도 2022년 3.3%에서 2.3%로 1.0%p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급등했던 LNG 가격의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다. LNG 가격은 2020년 9월 MMBtu당 5.88달러에서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2022년 2월 MMBtu당 17달러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LNG 가격이 16달러대로 하락하였으나, LNG 발전단가가 전체 전력단가의 기준⁶⁶⁾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LNG 가격 안정화 지연은 저탄소 에너지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LNG 발전량은 당분간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에 의한 기저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⁷⁾

전망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실질 부가가치 성장률과 가스 가격, 기온과의 실증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전기업의 비중이 2021년 기준 65.8%인데, 전기업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50% 안팎이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25%임을 감안하였다. 다만, 모형에서 자기상관성으로 인해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 대신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실질 부가가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 다른 설명변수로 가스 가격을 사용하였다. 에너지원 간 가격 변화에 따라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대체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건물 냉난방에 전기와 가스가 주로 사용되는데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전기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기온의 변화는 냉난방의 수요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모형에서는 냉방도일이 증가하면 가스의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난방도일이나 연평균 기온은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모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전환될 경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가스 가격은 유가의 추이를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망기간 동안 이런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았다. 냉방도일은 2022년을 저점(서울 기준, 31.2일)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66) 전력단가 결정은 계통한계가격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LNG 발전단가에 의해 결정됨. 전력 연료비 단가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원자력(6원/kWh), 유연탄(56원/kWh), 무연탄(66원/kWh), LNG(96원/kWh), 유류(181원/kWh)의 순으로 나타난다.

67) 강병욱 외, 「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21~2026)」,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8.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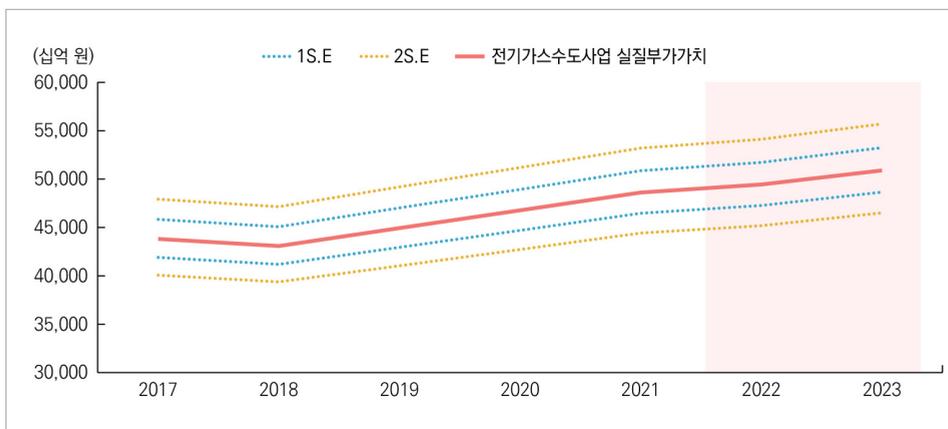
[그림 11-6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주요 결정 요인의 관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래 그림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 대한 전망 모형의 예측치와 신뢰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6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실질 부가가치 예측치



주: 음영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문헌



- 강내명·양지원,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8
- 강병욱 외, 「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21~2026)」,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8.
-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코로나19와 유동성 팽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2021.12.30.
- _____,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22.9.
- _____,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대응전략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전략」, 2020.8.7.
- 금융감독원, 「2022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2022.8.19.
- 김성훈, 「주요 국내의 화학물질 규제 동향 및 산업별 영향 조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22
- 김중기 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산업의 신성장전략」, 산업연구원, 2021.12.
- 김지연 외, 「국제곡물 가격 변동 요인과 전망」 「KREI 현안분석」 제89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7.
- 김현석, “기준금리 인상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131호, 산업연구원, 2022.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밀화학」, 2015.
- 도원빈·강내명, “국제원자재 가격과 원화환율의 변동요인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Trade Focus」 제1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
- 박경훈 외,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BOK 이슈노트」 제2022-27호, 한국은행, 2022.7.
- 박상우 외, 「건설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과 영향」, 한국은행, 2022.3.29
- 박상우·황나윤,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공급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22.6.13.
- 박용정·민지원이진하,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 변화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 22-07호, 현대경제연구원, 2022.
- 방글, 「사업지원 서비스업 노동시장 특성 및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2021.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8.15.

성지영,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건설업 영향 점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2.6.30.

이건우, 「구조변화지수를 통해 본 한국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1.6.24.

이동이, 「국내 철강 산업의 현황과 과제」,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8

이시욱·최용석,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의 방향」,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12.30.

이치훈·김기봉, “중국경제 전망 및 위험요인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2.8.29.

전황수 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6권 제3호, 2021.6.

정부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2021.3.3.

주원, “코로나 경제위기 만 2년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현안과 과제」 22-01, 현대경제연구원, 2022.1.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산업분석 Report - 자동차 -」, 2019.5.

최정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140호, 산업연구원, 2022.6.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72호, 2022.9.5.

한국수출입은행, 「2022년 상반기 해외건설 산업동향」, 2022.5.27.

한국은행 경기본부,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2.1.

한국은행,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최근 상황 점검,”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2021.11.19.

_____,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22-20호, 2022.

_____,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20.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2 상반기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2022.8.

허난이·박수령·문희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법무법인 광장, 2022.9.5

홍지상 외,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Focus」 제13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6.

황경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버팀목,”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08호, 산업연구원, 2021.5.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코로나-19 영향 12.1% 감소,” 2022.3.2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2.7.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년 2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7,398만 톤 처리,” 2022.7.21.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TMS)

부산향토문화백과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누리집

통계청 누리집, 「통계용어 및 설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기업생멸행정통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2023년 및 중기 경제전망 III
- 생산 부문 -

(Economic Outlook for 2023 and the Medium-Term III)

발간일 2022년 10월 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3781)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tel 02·786·2999)

ISBN 979-11-6799-083-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822-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